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THE HIDDEN HISTORY OF THE ENGLISH SCRIPTURES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THE HIDDEN HISTORY OF THE ENGLISH SCRIPTURES

© 2016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16. 11. 10

지은이 | Gail Riplinger

옮긴이 | 안성식

디자인·편집 | 김화영

표지사진 | 안성식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7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com

■ ISBN 978-89-89741-84-8

■ 정가 6,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역자 서문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의 문턱을 넘은 이래 꾸준히 교회생활을 했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였다. 이 성경이 많은 성경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신, 바로 그 유일하고 완전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된다는 믿음 앞에서는 뒷걸음질 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걸까. 성경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는 믿음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 중 어느 것이 더 믿기 어려운가? 말씀을 보존하시겠다는,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이를 믿지 못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책은 “In Awe of Thy Word: Understanding the King James Bible, Its History and Mystery” 라는 1184쪽의 양장제본에서 역사 관련부분 662쪽 분

량을 떼어 요약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다른 도움 없이 성경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하고 오류 없이 보존하시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이 책이 참고가 될 것이다.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설명하고 방어하는 준비된 일꾼이 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원저자 제일 리플링거 여사의 수고에 감사한다.

2016년 3월 29일

역자 진리침례교회 성도 안성식



성경은 마음 속으로, 가정 속으로 숨어들어 왔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피해 숨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짜 역사는 이교도들이 숨겨 왔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 동방에서 쓰인 진실된 말씀 ‘성경’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쇄되어 발간된 최초의 책입니다. 성경은 거의 매일 제본되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이 뿌려졌는데 그중 지금까지 남아있는 몇 권은 고가(高價)입니다. 성경은 눈먼 자들을 일깨웠고, 그들이 진리를 찾을 수 있게 예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 받는 킹제임스 성경은 1611 년부터 멈추지 않고 인쇄되었습니다. 성경은 무료로 배포되어 왔습니다. 사백 년간 전 세계에서 영어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오늘날도 전 세계 커피탁자와 침실 테이블 그리고 강대상에 잘 보이게 놓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의 영원성은 그 성경이 영과 생명임을 입증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개한 성경역본과 달리 살아서 지속되고 있습니다(빌2:16, 벧전1:23).



하나의 영어 성경

영어권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 모두가 한 믿음으로 같은 것을 말하게 합니다(엡4:5, 고전1:10). 구약은 한 성막과 한 법 그리고 한 관례를 정했습니다(출26:6, 민15:16). 구약에서 여러 대언자들이 한 입으로 말한 것이나 계시록의 두 증인이 한 입을 가진 것처럼 성경은 신약교회와 믿는 이들에게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을 말씀합니다. (왕상22:13, 행3:18, 눅1:70, 계11:3, 5, 고전14:27).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치된 의견을 유지하도록” 한 자리에서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것입니다(행2:1, 롬15:6, 빌3:16, 롬12:16, 15:6).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으며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고전10:3, 4).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같은” 영적인 음식물을 제공하십니다. 마치 범죄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종류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날에 영어권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오직 한가지 책만 있어야 합니다(요12:48).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계22:19). 제사장인 믿는 자들은 “나에 대해 기록된” 진리의 “두루마리 책”을 알아 볼 것입니다(히10:7). 그 이유는 그것이 나에 관하여 기록된 유일한 영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규칙에 따라 견고 같은 것을 생각할 지니라.”라는 말씀이 이 한 책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빌 3:16).

다른 언어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전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16:12에서 “그분께서 다른 모습[form]으로 나타나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다르게 보이셨지만 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계셨고(요1:1),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단3:25). 마리아의 자궁에서 그분은 아기였고 포대기에 싸여 있었습니다(눅2:12). 그분은 12살의 나이에 성전에서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화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분께서는 갈보리에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상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의 심장부에서 삼일 낮과 삼일 밤 계셨다가 일어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직 승천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녀는 그분이 동산지기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분은 “다른 모습”으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계1:14).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히브리어, 헝가리어, 영어와 폴란드어에서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순수한 히브리어, 그리스어, 고트어, 옛 라틴어, 앵글로색슨어, 영어, 페르시아인 성경 중에서 어떤 언어로 된 것이 진리냐고 묻는 것은 어느 예수님을 경배하느냐고 묻는 것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인 말씀은 지금은 썩어버린 재료에 기록된 원본으로부터 살아계신 말씀으로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명의 말씀은 아랍본문, 로마 문자 그리고 중국 글자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언어들로 최초의 모습으로부터 부활한 형태로 나타납니다(빌2:16).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 문자로” 기록된 명패가 있었습니다(눅23:38). 이 구절은 접붙여진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된 말씀이 단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뿐 아니라 ABCDEFGHIJESU 처럼 라틴 문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구절인데 새로운 성경 역본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한 언어는 다른 언어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청중의 문화를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다른 언어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 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전14:21, 사28:11, 13, 14). 이 약속은 사도행전 2:4, 5에서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씀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아와”라는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우리 언어로 듣느냐?”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이러한 언어를 받은 그들은 곧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들 언어들로 “복음을 선포” 했습니다(행2:4-11, 뱀전1:12, 25).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매… 이는 이방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행4:31, 10:44, 46).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감 받은 말씀을 “모든 민족들에게” 주셨다고 역사적으로 믿어왔습니다. 허만 오스키에르(Herman Hoskier)와 같은 학자들은 최초의 원본들은 그리스어로만 기록되지 않았다고 오랫동안 입증해 왔습니다. 1500년대 존 폭스(John Foxe)는 “어떤 고대 영어책에서 발견된 어떤 옛 조약들”이라 불리는 기록에 나오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책은 “또한 네 명의 복음전도자가 유대어로 마태복음을, 이탈리아어로 마가복음을, 그리고 아케아어로 누가복음을, 그리고 아시아어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등 다양한 언어들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도들에게 그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한 이후로 같은 나라들의 언어들로 기록했습니다(John Foxe, *The Acts and Monuments*, 1583, Stephen Cattley, ed., republished at London: R.B. Seeley and W. Burnside, * volumes, 1837, vol. 4, pp. 671, 675).

비숍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책 머리말에 “레위라 불렸고 세리로서 사도가 된 마태가 할례를 믿었던 유대인을 위하여 유대인 중 처음으로 복음을 히브리어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누가 그것을 그리스어로 옮겼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본은 체사레아 도서관에서 오늘날까지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매우 부지런히 모은 순교자 팜필루스 덕택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도시 베레아에 있던

나사렛 사람들은 똑같은 책인 “gaue vs leaue to copie it out”을 사용했습니다(J.R. Dore, *Old Bibles: An Account of Early Versions of the English Bible*, Eyre and Spottiswoode, 1888, 2nd edition, p.285).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성령님께서” 그 민족의 “언어”로 “말씀”을 주셨습니다(행10:14, 15, 34-37, 44-47).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토착언어를 말하는 속된 사람을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이탈리아 사람).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던 바울은 그가 너희 모두보다 타언어들을 더 많이 말했다고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고전14:18; 롬15:24). 켈트어를 사용하는 갈라디아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로 보낸 그의 편지는 또한 당연히 이들의 언어로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역사학 교수인 케네스 W. 할(Kenneth W. Harl 예일 박사)은 신약이 쓰인 당사가 그리스어를 말하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제국은 그들의 라틴어를 제국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미개인들과 도시화하지 않은 지방들은 정복된 기간에도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토착 언어들을 유지했습니다. 베르베르어, 아이베리안어, 켈트이베리안어, 이란어, 시티안어, 바스크어, 리구리아어, 칸타브리안어, 파르티아어, 앵글리어, 색슨어, 고트어뿐 아니라 그 외의 많은 언어들로 된 기록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ome and the Barbarians*, Chantilly, VA: The Teaching Company, 2004).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기록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은 그들이 회심한 직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사역자들의 음성을 통해서뿐 아니라 번역되어 기록된 말씀으로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을 듣게 됩니다”(번역자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롬10:18).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나라가 이러한 말씀들(사도와 예언자들의)로 가득 찼고 히브리 언어(히브리 언어로 된 성경을 의미)는 고대 그리스어뿐 아니라 로마어, 이집트어 그리고 페르시아어, 인도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스키타이어 그리고 사르마티아어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모든 나라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고트, 아라빅, 색슨, 프랑스, 스클라보니아, 독일, 영국(즉 1300년대 스페인), 시리아, 에디오피아 등의 언어를 포함].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는다는 것은 최근에 생긴 진기한 현상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개종하자마자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일입니다. (The Holy Bible, London: Robert Barker, 1611, The Translator to the Reader). 그들이 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왕이 국회에서 말했던 연설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된 것도 역시 왕의 연설인 것처럼 번역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캠브리지의 성경 역사를 보면 헤라클리아에 있는 고대 교회의 한 집사가 모든 성경의 사본이 사라진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통해서 다시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정도로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수한 토착어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사용하신 순수한 언어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언어들이 발전하면서 세대를 거쳐 보존되었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구 라틴

어는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와 루마니아어가 되었고 고트어는 영어, 독일어, 덴마크어가 되었으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안전망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도 순수한 복음에 대해 독점권을 갖도록 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배교자들이 복음을 보존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열왕기하 11장에서 왕가의 씨를 멸했던 것처럼 남아서 전해 내려오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고후 2:17).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들로 말씀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믿는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이 순수하다고 지지해 왔습니다. 요한일서 5:7, 사도행전 8:37, 그리고 요한계시록 16:5이 비전통적인 교회에 의해 변경되거나 삭제되어 왔지만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기원한 구(舊)라틴 필사본들처럼 다른 언어들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신약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집합체적인 몸은 참된 본문을 수용했고 보존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었다고 해도 몇 개의 본문은 아모스 8:11의 예언처럼 선택 받지 못해서 널리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몇몇 회의론자는 부활이시요 말씀이신 분의 뼈와 조상들의 무덤 속에서 그분의 기록된 말씀과 필사본을 찾기 위해 아직도 땅을 파고 있습니다(행2:12).

영어성경의 기원

부정확한 영어성경의 역사 연대기는 많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입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거울의 방처럼 단지 몇몇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를 복사하고 반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오래된 성경 말씀과 그 본문, 서문 그리고 역사적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 번역자 그리고 순교자들이 목격한 보고서를 시간의 흐름을 담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직접 인용해서 기록되어야 합니다(Tertullian(200s), Gildas(500s), Bede(700s), Asser(800s), William of Malmesbury(1100s), The Anglo-saxon Chronicles(700-1200s), and John Foxe(1500s)).

영어의 조상 격인 앵글로 색슨어와 고트어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대에 주요 국가들의 언어였습니다. 이 서문에서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킹제임스 성경까지 성경이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검증할 것이고, 고대 고트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핵심적 일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게르만어의 씨가 앵글로 색슨 성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이미 영어 성경이 위클리프(Wycliffe), 틴데일(Tyndale), 그리고 커버데일(Coverdale)의 역할로 꽃을 피우기 전에도 영어성경의 싹이 12세기와 13세기를 향해 싹이 트고 있던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변함없이 지속되는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만개한 꽃처럼 많은 언어로 꽃피운 말씀들로부터 달콤한 향기를 맡게 해 줍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첫 번째 영어 성경이 아닙니다. “영어의 과

학적 연구는 고트어를 연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The first Germanic bible, ed. G.H. Balg, NY: B. Westermann & Co., 1891, p. v). 고트어는 사도행전에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던 언어 중의 하나였습니다(행2:4-7). 고트어는 성령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는 선물로 사용하기에 유익했습니다(골1:5, 6).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33:11, 롬16:26). 이 고트어 복음을 받은 이름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말씀과(막16:15) 그 범위가 땅 끝까지여야 함을 정하신(행1:8)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을 고트민족에게 전달했습니다. 2세기 중반(AD 150)과 기원 후 초기에 고트민족은 유럽과 흑해를 가로지르는 동남쪽을 짙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최근에 완성된 신약성경의 일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스칸디나비아에서 스키티아(근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고트민족은 스구디아로 이주해서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서신에서 언급한 사람들인 바바리인과 스구디아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골3:11). 고트어 성경은 유럽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착어 성경이어야만 했습니다(Encyclopedia Britannica, 11th ed., NY: Encyclopedia Britannica Inc., s.v. Goths; Bruce Metzger, The Early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77, p. 377; The Bible Through the Ages, R.V. Huber, ed., Pleasantville, NY: Reader's Digest, 1996, p. 225; World Book Encyclopedia, Chicago: Field Enterprise, 1961, s.v. Goth; de Rob. Eccles. Cap. 7, as cited in G.W.S., The

Gothic Version of the Gospel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6, p, 248; EB, s.v. Goths.). 영어 언어로 된 말쑤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되었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영어 문장은 서기 450년경에 사용된 동전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늑대는 우리 가족에게는 보상이다” (see *The Mother Tongue: English and How It Got That Way* by Bill Bryson).

고트어는 어근의 발음이 영어와 유사하고 심지어 철자도 유사합니다. 고트 언어는 영어와 유사한 소리가 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영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트어는 고대 북유럽식 룬문자뿐 아니라 로마자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새 역본은, 킹제임스 성경과는 일치하는 고대 고트어 본문과 어긋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7b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새 역본에서는 “for us(우리를 위하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트어 본문은 그것을 현재 영어의 일상적 표현과 발음이 정확히 같은 “faur uns,”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5:5을 새 역본들은 “immoral person(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뜻을 흐리는 반면 킹제임스성경은 고트어 “hors”를 “whoremonger(음행을 일삼는자)”로 하여 동일한 유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69의 고트어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의 “Christ, the Son,”을 “Christus, sunus…”로 AD 700년 이전까지 따라 쓰고 있습니다. 앵글로 색슨어는 1389년에 “Crist…suna”로 1526년에 “Crist, the sone”로 그리고 “Christ, the sonne”로 사용하고 비숍 성경에서는 “Christ the sonne”로 사용했습니다. 갑자기 가톨릭과 여호와의 증인을 따르는 새 역본들은 요한복음 6:69을 “Holy One”(막1:24)으로 바꾸는 마귀를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복

음 4:25에서 “heaven(하늘)”의 발음은 고트어가 “himins”를 사용하면서 앵글로 색슨어가 “heofon”, 1389년 위클리프는 “heuene” 1526-1534틴데일은 “hevyn”, 1560-1599 제네바는 “heauen”, 1568년 비숍은 “heauen”, 그리고 마침내 KJB는 “heaven”을 사용하기까지 철자가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현대어 역본에서 대체해 사용했던 “sky”는 저 높은 곳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고트어 본문이 KJB와 계속해서 일치하는 것은 부패한 그리스어 본문 주석들에서 보여 준 것처럼 필사본 증거에서 교묘하게 제거된 것을 고대 고트어 성경에서 참조했기 때문입니다(연구자료).

현대어 역본에서 삭제된 모든 말씀들은 고트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9:29을 보면, 새역본들은 KJB에서 “prayer and fasting(기도와 금식)”이라 된 부분에서 “fasting(금식)”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고트어 성경에는 “bidai yah fastubnya(bid and fasting)”로, 앵글로 색슨어 성경에서는 “gegedu and on fæstene” 위클리프 성경에서는 “preier and fasting” 그리고 비숍 성경에서는 “prayer and fasting”으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KJB에서 이탤릭체로 된 말씀들은 모두 원본에는 없지만 영어로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된 것이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경우에 진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KJB는 가끔 전통원문이 마태복음 12:31에서처럼 명확하게 완성되지 못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Halgan Gastes”라는 부분은 틴데일 판을 따르는 고트어에서는 “Holy Goost”로 이미 일찍이 이탤릭체 없이 되어 있습니다. 새 역본에서는 “Holy(거룩한)”라는 단어가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게다가 요한일서 2:23에서 이탤

릭체로 된 부분은 사실 베자의 그리스어 본문과 4세기경 언셜 사본에서 이탤릭체로 되어 있지 않았고 스테파누스 판도 이탤릭체로 되어 있지 않다).

붉은 선이 있는 글자들은 마치 생명을 유지하는 우리의 구원자의 피와 같이 가장 오래된 성경부터 영어 킹제임스까지 각각의 연속된 성경의 말씀을 묶어 줍니다. 성경의 본문은 마치 말씀을 엮는 옷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월의 마모와 눈물을 견딜 수 있는 실타래로 그것을 엮어 갑니다. 위클리프는 어떤 말씀의 문맥을 푸는 것이 전체적인 거룩한 성경의 외피를 벗기는 작업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John Wycliffe, *On the Truth of Holy Scripture*, Translated from the Latin by Ian Christopher Levy, Kalamazoo, MI: Western Michigan University, Medieval Institute Publications, 2001, p. 2et al.).

영국은 그리스도 이전에 최소한 500년 동안 켈트족에게 지배당했습니다. BC 55년에 로마서가 그들의 율법과 라틴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100년도 걸리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국 브리튼 원주민들에게 전달할 방도를 찾아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라는 명령은 새로운 언어의 은사와 결부된 것이고 이 은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영국이라 불리는 아일(isle)이라는 곳에 1세기경 켈트어와 구 라틴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였습니다(막16:15). 성경을 영국에 전달한 선흥색 핏자국은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바다의 섬들에 사는 바바리안 켈트족이 사용한 켈트족 언어를 받아들인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시작됩니다(골3:11, 사24:15). 이러한 선교사들은 복음과 토착어 성경을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로 가져갔습니다. 문서작업은 영국에서 1세기 성경의 굳건한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자의 책 1,184쪽 분량

의 “In Awe of Thy Word” 라는 책자에서 소제목Understanding the King James Bible, Its Mystery and History, Letter By Letter의 내용을 통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단지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Ararat, VA: A.V. Publications, 2003, 1-800-4535). 그 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모든 세대”에(시33:11) 보존하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 책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라틴 사본으로부터 나온 부스리기들로 로마의 손에 있는 그분의 진짜 교회를 양육하신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없애 줍니다.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귀하게 여긴 토착어 성경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했습니다. 존 폭스는(AD 633년에 기록한 Gildas의 글을 인용해서) “브리튼 섬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티베리우스 제왕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초기 교회가 확산된 이후 주후 63년쯤에 아리마데스 요셉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사도인 빌립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예배는 서민들의(일상적)언어로 드러졌고 깨끗한 샘플이 아닌, 강에서 그들은 침례를 받았습니다(Foxe, vol. 1, pp. 306, 308 et al.). 폭스는 셀롯이라하는 시몬(누가복음 6:15, 사도행전 1:13에서 언급된 사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쪽 대양으로 전파했고 브리튼 섬으로도 가져갔다고 언급했습니다. 월터 스콧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1세기 초에 특히 네로와 도미티안 통치 기간인 AD 54-68, 81-96에 구 라틴 성경 등으로부터 성경의 많은 번역본들이 2세기경에 만들어지고 배포되는 동안에 아마도 사도 바울의 측근 동역자들이 그레이트 브리튼에 전파하였다고 말했습니다(Walter Scott, The story of Our English Bible, London: Pickering & Inglis, c. 1890, p. 126).

앵글로 색슨

AD 410년에 로마제국의 군사개입으로 브리튼을 떠나야 했던 브리튼 거주민들은 AD 449년에 앵글, 색슨 그리고 주트라고 불리며 바다를 향해하는 게르만 부족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방인 침략으로 원주민 켈트족 브리튼과 섬의 서북쪽 주변 땅으로 달아났던 픽스족이 소유했던 성경이 파괴되었습니다. 켈트 언어는 정복자 앵글과 색슨족 언어에 내주었습니다. 앵글로색슨어 (옛영어) 본문은 Engle 또는 Englisc (English로 발음됨)로 불립니다.

타키투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앵글과 색슨족의 일상 언어가 그리스도 시대에 사용됐다는 데 동의합니다. 앵글족은 사도시대에 살았던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 (AD 55-117)가 언급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AD 127-141)는 그의 지리학에서 앵글은 1세기와 2세기에 유럽 내부에서 우두머리 부족들 중의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또한 1세기에 유럽에 색슨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리튼을 침략했던 색슨족이 앵글족과는 얼마나 확실히 구별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언어와 관습 두 가지 면에서 그들의 관련성이 그 후로도 있기 때문이다”(E.B., s.v. Angli, s.v. Saxons). 앵글과 색슨족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이 그들이 자신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앵글과 색슨족은 비록 그 사본이 오늘날 남아 있지 않지만 1세기에 그들 자신의 언어로 된 복음의 내용과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길다스(Gildas)는 AD 546년경 브리튼 역사를 기록하면서 신구약으로부터 긴 인용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벌게이트성경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J.R. Dore,

Old Bibles: An Account of the Various Versions, London: Basil M. Pickering. 1876, 1st ed., p. 3). 1395년에 기록된 한 성경의 서문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베데(Bede)가 색슨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그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에 런턴의 일상 언어이거나 영어였다.” (The Holy Bible, Oxford, ed. John Wycliffe and His Followers, At The University Press, 1395 M.DCCC. digitized by Gell & Howell Information and Learning Co., 1997-2000, p. 59). “우리의 기록들은 베다(Beda)에 의해서 700년대 후 사십 년 이내에 전체 성경이 동일한 언어(색슨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Matthew Poole, A Commentary on the Holy Bible, Preface, c. 1685, p. iv)

영어의 초석인 고트어와 앵글로 색슨어는 주후 천년 동안 공존하며 사용돼 왔지만 각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주 일치하는 것은 창세기 11:7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던 곳에 자리잡은 똑같은 북부 중앙 유럽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앵글로 색슨 단어들은 오늘날의 영어와 아주 유사하게 발음됩니다. 심지어 ‘God’, ‘he’, ‘his’, 와 ‘me’ 와 같은 단어는 똑같은 철자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앵글로 색슨 필사본들은 7세기의 필사본들과 9세기 사본들입니다. 많은 단어들이 아마도 1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KJB 마태복음 9:32에서 “devil”은 앵글로 색슨어 성경 “deofol”에서 시작해서 위클리프 성경 “devel”로 그리고 비숍 성경 “deuyll”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단어들 모두 “devil”로 발음이 되고 있는데 오늘날 새 역본들에서 “demons”라고 하는 것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KJB 마가복음 10:30에서 “world”는 앵글로 색슨 성경은 “worulde”로, 위클리프 성경은

“world”로 유사한 반면 새 역본들에서는 잘못된 논리로 “age to come”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글로 색슨 성경에서 “helle”은 1389년 위클리프 성경에서 “helle”로 틴테일, 비숍 그리고 KJB에서는 “hell”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보를 새 역본들이 “hades”, “grave” 그리고 “depths”로 바꾸면서 지옥의 온도를 식혀 버립니다. 누가복음 4:4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역본들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가 삭제되어 있지만 추적해 가면 고트성경에서는 “ak bi all waurde Gups”로, 앵글로 색슨성경에서는 “ac of ælcum Godes worde”로, 위클리프 1389년 성경에서는 “but in euery word of God”로 그리고 틴테일 1526년 성경에서는 “butt by every worde of God”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천년

시간이 흘러서 고대 영어는 중세 영어가 되었고 그레이트 성경의 서문은 이것을 “더 새로운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적 관계는 단어 어미에 따르지 않고 단어 순서에 따라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이런 퇴보는 침략군 데인인과 노르만인들이 영국인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만들어진 피진어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영어에서 중세 영어로 옮겨 가면서 변한 것 중의 하나가 철자입니다. 고대 영어에서 “cwen”이 “queen”으로 발음됐지만 중세 영어에서 마침내 “queen”으로 철자가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영어 scip가 ship으로 발음되다가 중세영어에서 ship로 철자가 바뀝니다. 고대 영어 단어는 게르만어에 기초해서 폭이 좁은 반면 중세 영어에서 스칸디나비아어, 프랑스어, 그리고 라틴어 단어들이 포함되면서 그 폭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영어 성경은 우리에게 낯설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영어의 경계를 넓혀서 나중에 킹제임스 성경을 세계적으로 수용하는 문들을 열게 된 것입니다. AD 789 -987년 사이에 데인족들의 빈번한 침략으로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스칸디나비아 단어들이 영어에 들어갔습니다.

1000년도 초기에 영국 대부분을 다스렸던 스칸디나비아 왕 카누트는 열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The Horizon History of Christianity, Roland Bainton, NY: American Heritage Co, 1964, p. 164).

1066년에 프랑스 노르만인이 영국을 침략하고 난 후 2세기가 넘게 거의 10,000개의 프랑스 단어(75% 명사)가 영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영국에 있

는 프랑스 인구가 2%를 넘자 영어는 다수의 언어로 남았습니다. 프랑스 단어의 사례들은 그 기간에 소개되었고 KJB에서 오늘날 보이는 것은 crown, majesty, minister, prince, heir, trespass, prison, baptism, charity, creator, faith, prayer, repent, temptation, Saviour, virtue, 그리고 adultery가 있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 사이엔 antichrist 와 pope를 포함한 많은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전해졌습니다. 영어는 축복 속에서 태어나 뭐든지 소화할 수 있는 풍요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영어 단어 은행에 저장된 많은 단어들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매우 독특한 특징들을 갖습니다. 한 분이 일어 났다고 할 때, 앵글로 색슨어로 일어나다(rise: 마20:19)를, 프랑스어로 오르다(mount: 사40:31)를, 라틴어로 올라가다(ascend: 요20:17)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어휘들은 몇 가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두운, 운율, 각운을 만드는 데 영어와 킹제임스 성경이 커다란 보물 창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세기경 십자가에 쓰인 라틴 철자들을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사용하면서 오늘날에도 알아볼 수 있게 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이 국제적인 단어가 된 것입니다(요19:20). 스탠포드 대학의 영어와 비교문학 교수인 세스 레러(Seth Lerer)는 영어가 아주 많은 언어로부터 어휘를 빌려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어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어는 그 차용성 때문에 완벽한 국제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KJB는 이 국제적인 언어를 전 세계로 전달하는 흐름을 만들어 왔습니다(See Seth Lerer, Th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Springfield, VA: The Teaching Company, 1998.)

위클리프(Wycliffe)

위클리프(1325-1384) 이전에 영국사람들은 단지 성경의 일부분만을 믿고 있었다는 신화는 “그분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대상 16:15)을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롬16:26)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깎아 내리기 위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할 때 가톨릭신자들과 분수를 모르는 형제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지위가 쉽게 훼손됩니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것에 관심을 기울여 스스로 판을 짜서 다듬질을 합니다(The Holy Bible, London: Robert Barker, 1611, “The Epistle Dedicatory”).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클리프, 틴데일, 제임스 왕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들에 연결합니다. 또 “The Holy Bible”이라는 제목을 붙여 왔습니다. 옥스포드 학자인 크리스토퍼 디 함멜은 “중세에는 독단적으로 유명한 저자들의 이름과 본문을 연결하는 열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De Hamel, p. 170). 위클리프는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어성경은 신실한 사람들의 수고와 열정을 통해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그저 철자와 관용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성경의 단어가 영국풍으로 어순이 된 것을 손질했을 뿐입니다(i.e. Bede, Alfred, Athelstan, Richard Rolle et al.). 1300년대 후반부에는 존 디 트레비사처럼 또다른 사람들이 로드 토마스 디 버클리 의 후원으로 영어판 전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후원자는 버클리에 있는 자신의 예배당의 벽과 천장에 계시록 전체를 써 놓았을 정도로 성경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 후로 수백 년간 남아 있었습니다(Alexander McClure, The Translators Revived, Litchfield, Michigan: Maranatha

Bible Society, Harback edition, 1858 facsimile, p, 17). 영어성경이 1300년대에 존 위클리프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신화는 영어 성경의 뿌리와 짝이 위클리프 이전에 사도행전 2장부터 앵글로 색슨 기간을 거치고 11세기, 12세기 그리고 13세기를 지나면서 무성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인용구가 있는 서신들을 통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성경전서는 고결하고 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위클리프 시대 이전부터 오래 전에 번역하였습니다(taken in part from Dyalogues, 1530, p. 138 as cited in Dore, 2nd edition, pp. 1, 2).

도레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편과 신구약의 다른 부분은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여러 시대를 거쳐 구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Dore, 2nd ed., p. 3). “사실 14세기 중반 이전에 구약 전체와 신약의 대부분이 당시의 앵글로 노르만 방언으로 번역되었다”(EB, s,v. Bible, English, p. 895). 위클리프의 초기판은 완성도를 제외하고 앞선 노력들보다 조금 진전이 보인다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인정하고 있습니다(EB, s,v. Bible, English, p. 897). 위클리프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 많은 구 영어성경들(elde biblis)과 행간에 있는 주석들(commune glosis)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서문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First, this simple creature hadde myche trauaile, with diuerse felawis, and helperis, to gedere manie elde biblis, and othere doctouris, and commune glosis, and to make oo Latyn bible sumdel trew; and thane to studie it of the newe, the test with the glose, and othere doctouris, as he mighte gete...”(EB, s,v. Bible English, p 897) 위클리프 판에 대해 디 함멜은 “이것은 이미 영어로 된 내용으로부터 복제된(의심하지 않고 서둘러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번역된 것이 아니라 옮겨 적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De Hamel, p. 171).

위클리프는 “성직자가 거룩한 성경을 영어로 말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하늘 아래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언어를 주신 성령님을 비난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습니다(John Wycliffe, *Speculum Secularium Dominorum, Opera Minora*, London: Wycliffe Society, John Loserth, editor, 1913, p74). 위클리프가 말하길 “나는 우리 중 몇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즉 영어로 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에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Truth, p. 194). 성경 번역자들에게 위클리프는 “지혜와 지식과 진리의 창시자이신 성령님께서서는 그의 일을 하시는 데 모습을 갖추시고 오류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John Wycliffe, *Holy Bible, Prologue*, Cambridge: Chadwyck-Healey, digitized edition of Forshall and Madden’s 1850 edition, 1997, pp. 59–60).

위클리프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교회의 형상에 맞도록 성경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Truth, pp. 204–205). 어떻게 정원사가 백합의 향기에 대해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원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는 강한 힘으로 손을 움직여 하나님의 씨들을 한 줄 한 줄 심은 것뿐입니다. 정원사와 문법학자는 하늘의 태양 아래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거하시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말4:2, 요 6:63, 벰전1:23).

성경공부에 대해서 위클리프는 “말씀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 자체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

습니다(*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NY: Funk and Wagnalls, 1911-1912, s. v. Wyclif, p 463). 위클리프 성경의 서문은 번역자들이 어떻게 신중히 단어나 절의 앞 뒤 말씀들과 절을 연구함으로써 내장된 단어의 의미를 찾아 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부정확한 단어가 나오면 앞과 뒤 모두의 의미를 잘 연구해야 하고 그 단어가 그 의미를 따르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The Holy Bible, John Wycliffe and His Followers, At the University Press, 1395, Prologue, p. 60, digitized Cambridge: Chadwyck-Healey, 1998-2000). 위클리프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거룩한 성경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진리다. 성경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설명한다.”(as cited I Fountain, p. 48). 위클리프가 말하길 “성경의 기록으로 언급된 각각의 의미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영에 따른 진리인지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입증되기도 한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으로 언급된 것이다. 미리 규정짓고 설명하기 전에 이 진리의 의미가 독자나 청중의 마음에 다가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 했습니다. “성경의 같은 말씀들도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의해서 입증되기도 한다”(Prologue, p. 45).

125년 이상 통제수단으로 적용되었던 영국 법은 위클리프와 관련된 모든 책들과 성경들을 “찾아내서 철저히 불태워 버리게 한 극단적인 법”이라 불렸습니다(De Hamel. P. 166.). 만약 그가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톨릭 라틴 벌게이트에서 번역했다면 그러한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위클리프가 부패한 벌게이트에서 번역했다는 잘못된 믿음은 위클리프

의 사후에 그의 동료인 퍼베이(Purvey)와 헤레포드(Hereford)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의 성경의 특정 부분들이 별게이트 짓을 따르게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the deep things of God/하나님의 깊은 것들”, “white sepulchers/회칠한 무덤”, 그리고 “Who is this King of glory?/영광의 왕이 누구신가?”와 같이 위클리프의 진본 성경에서 보인 구절들은 칠 백년 이상 동안 영국인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한 성경은 틴데일과 커버데일이 소중한 영어의 꽃이 피는 것을 볼 때까지 140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틴데일

손으로 기록된 영어 성경은, 수많은 영국 그리스도인들과 수천의 성경들을 화형에 처했던 용광로 같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1400년대와 1500년대에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시12:6). 비록 성경이 사도시대 이후로 필사본 형태로 존재해 왔지만 첫 번째 인쇄된 성경들은 1455년 이후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저지대 국가들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일즈 커버데일은 다른 민족들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인쇄된 형태로 더 풍성히 제공받았어야 한다며 불평했습니다(Dore, 2nd ed., p.108). 영어성경은 윌리엄 틴데일이 바라보는 가운데 인쇄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c. 1484-1536). 그는 주교인 커버데일과 킹 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다듬어 놓은 것에 마지막 손질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과 구약의 일부분은 주로 틴데일이 남겨놓은 그대로입니다(Dore, 1st ed., p. 13). 예를 들면 계시록 21:1-3에서 KJB는 네 단어를 제외하면 틴데일과 동일합니다. KJB 번역자들은 위클리프에서 이들 단어 중 세 개를 그리고 제네바 성경에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그의 삶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렸으며 인쇄된 영어 성경을 다듬고 보존하고 그리고 출판하기 위해서 그의 작가로서의 재능을 드렸습니다(시45:1). 성경에 대한 틴데일의 관심은 에텔스테인 왕이 어떻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되도록 하였는지를 이야기하는 라틴 연대기 (Gesta Regum Anglorum; Great Deeds of the English Kings)를 읽을 때 시작됐다고 언급합니다[에텔스테인은 900년대에 살았던 왕으로 알프레드의 손자였습니다.] (Benson Bobrick, Wide as the Waters, NY: Simon & Schuster, 2001, p.80).

틴데일은 1520년대 초기에 신약성경의 세련된 내용들을 밝히는 교사로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높은 권위에 앉아 점잔을 빼는 성직자들에게는 너무 강한 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틴데일의 도움을 거절하자 그는 자신의 귀중한 짐들을 유럽으로 가져가서 1525년 7월에 신약성경을 완성했습니다. 켈른에서 그의 인쇄물들이 가톨릭 종교 재판의 망치 아래 처참히 부서지자 그는 보름스로 다시 피신을 해서 1525년까지 작업을 마쳤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다.

1525년과 1526년 사이에 틴데일의 신약성경을 제작하는 도시들로부터 온 배들은 영국 항구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1527년 봄에 농작물을 심는 것을 방해하듯이 영국에 비가 퍼부었습니다. 가을까지 굶주린 브리튼 사람들은 음식물을 찾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사랑하는 대륙에서는 음식물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혼들은 이제 육신의 빵과 금지된 생명의 빵인, 교묘히 감춘 틴데일의 신약성경 사본을 실은 배를 환영했습니다. 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책이 학식있는 사람들과 개혁가로 알려진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포함한 모든 영국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Dore, 2nd ed., p. 15). “신약 성경 사본에 대한 엄청난 요구”가 있었습니다(Dore, 1st ed., p.16). 그들은 영국에서는 인쇄를 할 수 없게 되자 앤트워프(벨기에 북부의 제2의 대도시)에 있는 인쇄기가 수요를 공급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신약성경은 “사 년 동안 15,000부 이상” 출간되었습니다(J. Paterson Smyth, How We Got Our bible,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886-1911, p. 88, n. 2). 1526년 판은 숨기기 편한 작은 포켓사이즈였습니다

(De Hamel, p. 242).

1530년까지 “그 땅에 약 50,000부의 사본이” 있었습니다. 인쇄된 영어 성경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Bobrick, pp. 142, 84). 맥그래스는 “1527년에 헨리 8세의 조언자인 존 라스텔이 ‘이 영역의 전반적인 사람들은 매우 만족했고 자신들의 언어인 영어로 읽게 되는 위대한 상황’을 언급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Alistair E. McGrath, *In the Beginning*, New York: Doubleday, 2001, p.34).

손으로 기록했던 인쇄되었든 신약성경 책의 가격은 영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없이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1420년에 전체 필사된 성경 한 권의 값은 “4 마르크와 40 펜스”였는데, “롤라드(역자주:14-15세기의 John Wycliffe파의 교도) 단체가 그들 사이에서 사본 하나를 사기에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인쇄의 발명과 함께 틴데일의 신약성경은 “노동자들도 쉽게 지불할 수 있는” 7 그로즈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들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단히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갖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사본을 구입할 수 없었다면 그것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McGrath, p. 34, pp. xv, xvi).

성경에 대해 캠브리지 역사는 틴데일 본문을 “불필요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지나치게 구어적이고 근대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위역판이 더 위엄”이 있습니다(G. W.H. Lamp, Cambridge: University Press, vol. 2, pp. 144-145). 시편 29:4은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다”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틴데일이 “단순하고 대중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EB, s.s. Bible, English, p. 899). 틴데일은 우리 KJB의 더 향상되고 더 풍성한 단어들을 예상하고 미리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편집본에서 그는 “이것을 완성된 모습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 마십시오.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좀 더 적절한 영어를 찾기 위해서 이것의 완성된 모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Dore, 2nd ed., pp. 23-24). 예일대학 출판부 작가인 데이비드 다니엘은 자신의 “옛것은 사라진다/Old things are gone”를 KJB의 운율이 있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the former things are passed away”와 비교하면서 틴데일의 “간결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계21:4).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경이 보통의 내용보다 더 향상되어야 하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권위역판의 성경이 “방주로 들어가다/went into the ark”를 “entered into”로, ‘prayed’를 ‘besought’, 그리고 ‘edge’를 ‘border’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David Daniell, transl., *Tyndale’s New Testa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pp. xxvi, xxvii, xxviii).

틴데일은 첫 번째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1530) 그리고 요나(1531)를 번역하면서 하나님의 “철필”을 구약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 귀중한 화물을 운송할 때 “뱀이 자기 입에서 ... 물을 홍수같이 내뿜”는 것 같은 난파를 겪었습니다(계12:15).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구약성경을 마일즈 커버데일의 도움으로 좀 더 빛나게 하셨습니다(Foxe, vol. 5, p. 120). 틴데일의 마지막 투옥은 창세기의 수정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상을 번역하는 데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이 출간되기 전까지 인쇄되지 않았습니다(McGrath, p. 34). 커버데일이 이번 편집본에서 에스라부터 말라기까지 작업에 기여를 했지만 2인치 크기의 큰 글자로 “W.T.,(William Tyndale의 약자)” 라고 저작자를 표기하여 구약을 완성했습니다.

영어성경의 소유와 번역을 금지하는 옥스포드의 헌법 때문에 틴데일의 작품을 소유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틴데일 자신은 1536년 10월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불꽃이 솟자 그는 죽기 전에 탄식하며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침에 답하셨습니다. 그가 죽던 그 해에 틴데일의 신약성경이 영어로 인쇄되었습니다(Dore, 1st ed., p.22). 1537년 두 번째 판은 “영국 왕의 자비로운 허락”을 받고 시작되었습니다(H. Guppy, *Miles Coverdale and the English Bible*, Manchester: Th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vol, 19, No. 2, July 1935, p. 17).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사도들과 순교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마10:19, 20). 만약 하나님께서 순교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유언을 토착 언어로 말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토착어로 된 성경 말씀으로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틴데일은 성경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아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고 둔하고 눈치 없는 사람으로 만드

셨습니다”(Foxe, vol. 5, p. 134). 그는 또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님의 은혜입니다. 그분 없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
님께서 하신 일에 보상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아무 권
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Bobrick, p. 135).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식과 명철의 은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Dore, 2nd edition, P. 24).

커버데일

마일즈 커버데일(1488-1568)과 틴데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고전3:9). 틴데일과 함께 커버데일은 복음 설교자로 헌신하고자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커버데일은 진심으로 틴데일과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따랐습니다(Guppy, pp. 5, 17). “커버데일은 고해성사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반대하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Encyclopedia Britannica, 1910 ed., s.v. Coverdale Miles, p. 343). 모든 면에서 그의 설교자로서의 놀라운 대중성은 모두가 동의를 합니다(Schaff-Herzog, s.v. Coverdale, Miles, p. 291). 박해로 인해 그는 영국을 떠나 유럽으로 갔습니다. 폭스에 따르면 함부르크에 있는 틴데일과 함께 영어 구약성경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틴데일과 함께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나올 때 그는 순수한 성경과 부패한 가톨릭 편집본의 논리적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커버데일이 틴데일의 작업을 돕고 발전시켰지만 그는 대체로 틴데일을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에서 커버데일은 틴데일의 1534년 판에서 단지 세 단어를 변경하였는데 이 세 단어는 틴데일의 1525년 판을 따른 것입니다.

커버데일의 1535년 판은 첫 번째로 완성된 인쇄본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인쇄된 영어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로부터가 아니라 다른 번역문에서 파생된 번역문을 선택하셨습니다(Guppy, p. 14). 커버데일은 지혜롭게 단순히 존재하는 번역본들의 혼합물을 함께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커버데일은 독일어와 라틴어를 잘했고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도 약간 했으며 프랑스어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Schaff-Herzog, s.v. Coverdale, Miles, p. 291). 커버데일은 자신의 서문에서 “나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언어들로 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가지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내 번역본에 다른 번역본들을 반영했습니다”(McGrath, pp. 89, 90). 그는 틴데일의 신약성경(1525), 모세오경(1529-30), 그리고 요나서를 면밀하게 그러나 융통성 있게 따랐습니다(1525). 1524-34년 츠빙글리의 독일 스위스 성경은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따라서 번역한 시초였습니다(Guppy, p. 15). 영어가 독일어(앵글로 색슨 고트어 등)와 라틴 단어들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커버데일 또한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1534-35년의 세바스찬 문스터 그리고 1528년의 파그니누스와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커버데일의 처가 형제인 조안 맥알피누스 박사는 덴마크 왕인 크리스천 3세의 목사였고 첫 번째 덴마크 성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커버데일은 틴데일의 여호수아부터 역대기하까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독일어 성경을 따랐습니다. 욥기는 취리히 스위스어 성경을 따랐습니다(*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ed. S.L. Greensla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vol. 3, pp. 148-149). 그의 시편은 루터 성경을 면밀히 따랐습니다. 그의 말라기는 스위스 성경의 영향을 보여 줍니다.

커버데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석의 “은사”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성경 서문은 번역 중 그의 작업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의 나의 간단하고 거친 작업”이라고 묘사했습니다(Dore, 2nd ed., p. 106). 학자들이 그의 작업에 대해 “아름답게 선율을 느끼는 귀”라고 평가하자 그는 단지 그 귀만 그의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커버데일은 “내 것은 불충분하고..... 그리고 내가 번역 업무를 수행

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켜서 그들 안에 있는 자신을 더 활성화하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번역하고 출판할 수 있는 은사를 그분의 교회에 열어 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Coverdale Bible 1535, digitized Cambridge:Chadwyck-Healey, 1997, pp. 5. 6. 7).

매튜의 성경

1538년에 정부의 인정을 받고 유통되는 영어 성경은 두 가지 인쇄본이 있었습니다. 커버데일의 1535-1537년 성경 그리고 매튜의 1537년판입니다. 마지막 인쇄본은 합스버그에서 그래프턴 화이트처치에 의해 인쇄되었습니다. 비록 이 성경이 틴데일과 커버데일의 번역 작업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토마스 매튜의 성경이라는 필명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틴데일의 이름이 그 당시 헨리 8세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곧 화형에 처해지게 될 존 로저스는 자신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내가 만든 성경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지를 몰랐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 때문입니다. 나의 말로 기록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Foxe, vol. 6. 597).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말씀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보존하셨으므로 (커버데일에게 그렇게 하셨듯)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대신 쉽게 읽을 수 있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타지역 언어 성경과 영어 본문을 비교하도록 로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저는 틴데일의 성경을 사용했고 그것을 다시 독일어 성경과 비교했습니다(Scott, p. 145). 그는 “‘혀로 말한다는 것’ 즉 ‘라틴어나 그리스어처럼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다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Foxe, vol. 6, p. 595). 역사학 교수인 제임스 프로우드는 더욱 보수적인 시기(1497)에 “구식의 보수주의로부터 많은 반대와 악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손에 넣

을 수 있는 문법책이나 사전”들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박해자인 토마스 모아경은 “그리스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단자라 부르고 그리스어 교사들은 어른 마귀들이고 그리스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꼬마 마귀들”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설교자”를 비웃습니다.(J.A. Froude, *Life and Letters of Erasmus*, NY: Charles Scribner's Sons, 1899, pp. 39, 140, 141).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기 때문에 허로 하나님의 말씀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1520년대의 어떤 설교는 심지어 “그리스어를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이단을 만들어냅니다.”라고 했습니다. (smyth, p. 93).

틴데일은 한 이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그의 견본이 나온 후에 모든 사람이 자신 앞에 놓인 번역본을 가지고 장난하듯이 취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본문의 단어들을 빼내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곳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끼워 넣는 것을 정당하다고 했다면 그것은 이단자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고 우리가 그들을 개선해야 할 기초를 파괴하고 모든 이단자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다”(Tyndale Bible, New Testament, Chadwyck, pp. 10. 11). 영어 번역에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의 단어단어를 불태우는 관행에 대해서 영국의 호민관이 1547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지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번역자들은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고 있으며,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껏 아무도 항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런 상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불타고 폐지되어서 머지않아 몇몇 사람들이 분노가 극에 달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지 어떤 것이 진짜 성경인지 알아 볼 수 없게 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잘못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 또는 영어 성경 중에 진짜 복음이 있다고 말한다면...”(Fexe, vol. 6, pp. 2, 29, 28).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당신이 한 두 개의 언어(그리스어나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소수에 속하여, 영어는 알지만 그리스어나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치워버린다면 이들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부터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이 생겨날 여지를 허용하고 마는 것입니다.”(Fexe, v. 6, p. 29).

그레이트 바이블 (위대한 성경)

1536년에 헨리 8세 왕은 영어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Foxe, vol. 5, p. 167). 커버데일은 헨리 8세 왕의 대리인들인 토마스 크롬웰(재정을 담당),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나중에 순교했고)로부터 매튜 성경에서 사용된 반가톨릭 노트 없이 영어성경을 편집하고 조정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헨리 8세 왕이 모든 가톨릭 수도원을 폐쇄했을 때 숨겨진 고대 고트어와 앵글로 색슨 필사본이 틴데일, 커버데일 그리고 그레이트 바이블의 번역을 이끌기 위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레이트 바이블은 초기의 커버데일 판을 맹종하며 재인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커버데일에 의해서 좀 더 다듬어진 것을 보여 줍니다. 그레이트 바이블의 두 번째 판은 종종 크랜머의 성경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 성경의 최고의 서문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서문은 일반인들이 1540년에 자신의 집에서 성경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세기 작가의 인용문 일부분에서 “누구든지 집에서 매일 그리고 수시로 또한 설교중에 스스로 읽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The Holy Bible [The Great Bible], 1540, digitized Cambridge: Chadwyck-Healy, p.8).

크랜머의 서문과 이 당시 초기 번역자들은 딤후3:16 “**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때 “모든”은 영어 성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레이트 바이블의 서문은 “그동안 가장 훌륭한 번역의 은사를 부여했던 사람들의 수고로 당신에게 제공되었던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Dore, 2nd edition, pp. 176-177).

신약성경은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해석(interpre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e.g. 요1:42, 9:7, 행9:36, 13:8; 히7:2). 그러므로 벤후1:20에서 금지된 개인적 해석은 개인적 번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e.g. new versions and lexicons). 시편12편에서 약속된 보존은 “모든 민족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진”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롬16:26).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의 보존을 맡기신 키퍼데일은 영어 해석(번역)은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왔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비판에 대하여 이들의 견해가 더 무게가 있게 되었습니다. 키퍼데일은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라틴어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시지만 히브리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된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W. Kenneth Connoly, *The Indestructible Book*,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96, p. 148). 그레이트 바이블의 서문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알아야 할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거룩한 기록들입니다(Holy Bible, 1540, p. 4). 전체적인 개혁 기간에 지도자들과 번역자들 그리고 성경 서문의 작가들은 그들의 토착어 번역을 “저자가 하나님이신 성경”으로 설명합니다. 서문은 그레이트 바이블 자체를 성경으로 자주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서문에서 “우리에게 책을 사주세요! 바로 그 성경책이요!”라고 말합니다.

1535년 키퍼데일 성경에서 서문은 영어 본문을 성경으로 칭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라도 성경말씀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오. 누구나 자유롭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경배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성경으로 눈을 돌리시길 바라나이다. 저자가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의 최고의 복된 말씀은 영광스럽고 지금이나 영원히 권위가 있나이다. 아멘” (The Holy Bible [Coverdale], 1533, Cambridge: Chadwyck-Healy, pp. 11, 12) 그레이트 바이블의 두번째 판의 제목은 의심의 여지 없이 커버데일에 의해서 쓰였고 “영어로 된 성경 즉 신구약 모두를 포함한 기록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로 적혀 있습니다(Dore, 2nd ed. P. 164).

비숍 성경

변덕스러운 왕 헨리 8세가 갑자기 성경의 개인적 사용을 완전히 폐지하고 누구도 읽거나 가지는 것을 금하는 포고령을 1546년 9월 1일에 선언하면서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성경이 많은 목록의 기독교 서적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Foxe, vol, 5, pp. 565,566). 헨리가 그 포고령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사망 진단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12주가 지난 후에 그는 심각한 병을 얻게 되었고 1547년 1월 28일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상속인인 9살 왕자 에드워드 6세는 영국에 다시 한번 6년간의 평화와 성경의 인쇄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왕으로 즉위한 뒤 에드워드는 그가 통치하는 세 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세 개의 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검들 이전에 선호했던 성령의 검인 네 번째 검 성경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Conno..y, p. 154). 영국에 있는 서른 한 개의 인쇄기는 오직 성경만을 인쇄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Guppy, p. 24). 에드워드는 15세에 사망했습니다. 그 시대의 믿을 만한 역사기록에는 “모든 사람이 그는 독살되었다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Chronicles of the Tudor Kings*, David Loades, ed, Godalming, Surrey: CLB International, 1997, p. 245).

여왕 메리의 피비린내 나는 공포의 통치는 1533년부터 1558년까지 영국을 괴롭혔습니다. 폭스는 “영국 남자들의 수많은 죄악들은 여왕 메리의 통치 기간에 또 다른 고통을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Foxe, vol, 5, p. 699). 그는 “아!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과 하나님의 적들이 매일 이루었던 성

공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라고 첨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삶이 아니라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Foxe, vol. 7, p. 209). 1554년에 성경을 읽는 것은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1554년에 메리 여왕은 가톨릭이 “이단적으로 번역된 성경”이라 칭한 성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설교자와 인쇄자와 책 판매자”를 추방했습니다(Foxe, vol 6, pp. 504, 430).

메리가 일찍 죽으면서 여왕 엘리자베스가 왕관을 이어 받고 다시 한번 성경에 자유가 생기는 통치 기간이 되었습니다. 1568년부터 1619년 초기까지 인쇄되었던 비숍 성경은 약간의 변화가 생겼지만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그레이트 바이블의 표현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석을 바꾸었고 그들을 편파적인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시편 45:9에서 그들은 “오빌은 최근 크리스토퍼 콜롬보가 발견한 서부 해안에 있는 섬으로 생각된다”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Dore, 1st ed., p. 77, 2nd ed., pp. 237, 250).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주님께로 마음이 열린 왕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알아봅니다. 역대 하 34장에서 서기관은 “제사장이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책”이라고 불렀습니다(18, 21절). 왕이 구약성경에서 “칙령을 만들” 때 그의 말은 변경될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 6:11에서 “...누구든지 이 말을 변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것으로 인해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단6:25) “왕들의 왕”이신 분께서 그보다 못하시겠습니까(딤후6:15)? 심지어 느부갓네살 같은 이교도 왕들도 흠이 없는 것들을 찾습니다(단1:3,4). 그러므로 많은 초창기 토속어 성경들이 대영제국 알프레드(c. 899), 스페인 왕 알폰소(1223년쯤 프랑스어에서 스페인어로), 프랑스 왕 장 2세(1333), 왕 프란시스 1세 그리고 아들 헨리(1550년 스테파누스 본문), 덴마크 왕 크리스찬 3세(c. 1550), 그리고 마침내 영국의 제임스 왕 1세(권위역 1611)와 같이 왕의 권위 아래 만들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임스 왕 6세는 1567년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존 닉스의 대관식 예배와 함께 스코틀랜드의 국왕으로(6월19일, 1566-1625) 등극했습니다. 그는 36년동안 스코틀랜드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성경 책의 내용을 기억력으로” 인용하곤 했습니다(B. Bevan, *King James VI of Scotland & I England*, London: The Rubicon Press, 1996, pp. 13, 14; C. Bingham, *The Stewart Kingdom of Scotland 1371-1603*, NY: Banes & Noble Books, 1974, p. 234).

영국 대사인 헨리 킬리그루경은 8살인 제임스 왕을 알현했는데 그는 “제임스 왕께서는 프랑스어도 놀랍도록 잘 했습니다. 나에게 낯설게 보였던 것은 그가 라틴어로 된 성경의 한 장을 프랑스어로 족석에서 읽고 나서는(내 앞에서) 프랑스어를 다시 영어로 아주 유창하게 읽어 주는데 그의 번역에 첨언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학교 스승들이었고 비범했던 조지 뷰캐넌과 피터 영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가리켜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서 나는 배워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부분을 제임스 왕에게 읽어보게 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Bingham, p. 233). 당대의 사람은 18세 나이의 제임스에 대해서 “그는 많은 언어를 배웠고 과학들과 국가의 일에 뛰어나서 그의 지식의 폭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넓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Bingham, p. 233).

1603년 7월 여왕 엘리자베스 1세의 죽음으로 36세의 제임스 왕 1세는 영국의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즉위 후 곧바로 1604년 1월 14일에 그는 영어 성경의 최종 담금질을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햄프턴 코드 강연회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제임스 왕 1세는 일찍이 “성경이야말로 모든 진실한 기독교인에게 오류가 없는 확고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 기록했습니다(King James VI, *Daemonologie*, Edinburgh, 1597). 그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담겨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 번역 작업에 대해서 “자신의 지분[급여]을 처분해서라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말했을 정도로 강력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번역자들도 그들의 작업에 애정을 느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작업에 임했습니다. 제임스왕의 성경에 대한 사랑은 그가 1605년에 옥스포드를 방문했을 때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구절들을 마을 전체와 집과 교회들과 학교들과 건물들에 적어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Stephen A. Coston, *King James The VI of Scotland & The I of England: Unjustly Accused*, St. Petersburg, FL: Konigs Wort, 1996, pp. 47-48; Robert Chambers, *The Life of King James The First*, Edinburgh: Constable & Co., 1830, cited in Coston, p. 309; Gustavus Paine, *The Men Behind the KJB*, Grand Rapids, MI: Baker Books, 1989, pp. 13, 14, 81; G.A. Riplinger, *King James and His Translators and In Awe of Thy Word*, Ararat, VA: A.V. Publications, 2010).

제임스 왕 : 경건한 기독교인

제임스 왕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 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위해 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바실리콘 도란』(세계적인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이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왕은 그가 “내가 거듭나서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만큼 그분께로 다가가서 어린양의 피로 씻긴 하얀 옷을 입고 그분 안에서 영원히 거룩히 구별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1604년 3월에 영국의 왕인 제임스가 사역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혼들을 얻어 왔을 때보다 좀 더 조심스럽게, 방심하지 말고, 부지런해져야 하고, 이전에 어디에서 느릿느릿거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우라”고 촉구했습니다(Antonia Fraser, *Faith and Treason: The Story of the Gunpowder Plot*, NY: Nan A. Tales Doubleday, 1996, p. 89). 『바실로콘 도란』이라는 책에서 왕은 그의 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최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거룩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다). 그는 그의 아들에게 공허한 이 세상이 판단하는 법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헤아려 보라고 훈계했습니다.

국가의 ‘위인 인명사전’은 제임스 왕은 확실히 순결한 삶을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그의 삶의 덕목 중에 그 어느 것도

그의 조상들이 보여 준 대부분의 본보기와는 대조적으로 그가 오늘날까지 흠 없이 유지한 그의 순결한 삶보다 더 빛나는 것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Coston, pp. 55, 44, 284, 39). 한 이탈리아 방문객은 그의 “순결함”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그리고 그의 외모에 절제된 친절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 그는 머리를 짧게 하고 있고 음식과 옷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 재물에 관해서 제임스 왕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멋진 옷과 화려한 인생을 갖기 전에 검소한 옷과 간결한 삶을 갖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 F. 웨스트코트, F. H. A. 호르트 그리고 J. B 필립이 주술을 추종하는 새 역본 저자들을 부패시킨 것과는 다르게 제임스 왕은 그러한 것들을 대항하는 ‘마귀론(Daemonologi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주술사와 상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Coston, p. 52).

제임스 왕이 침례교도를 박해했었다는 비난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왕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종교의 다양한 의견 때문에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내 양심으로 결코 허락할 수 없는데 오히려 가톨릭 교인이 증가할 수록 그들의 오래된 원칙들이 우리들에게 관행으로 강요되는 것이 나는 유감이다.” “나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의 육신에 형벌을 가해야 하는 것이 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Frase, pp. 38, 88). 제임스 왕은 “나는 잘못된 교회의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주석들 중에 하나로 인해 가해지는 박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Bevan p. 69, 48). 예수회 테러집단들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반 교황 정부 의원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13명의 공범자가 36배럴의 화약 약 6,000 파운드를 의회 밑 비밀 통로를 통해 묻었습니다. 1605년 11월 5일, 화약이 터져서 의사당 건물 전체가 무너지기 한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그 음모는 드러났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판부의 제이코빈 페이지트(1963)는 “거룩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이 제임스 왕은 패배한 경쟁자들이 퍼뜨린 모략의 대상이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벤자민 디스라엘리는 그러한 경쟁자들은 그들의 작업을 역사 자체로서 기록하지 않고 모욕과 욕설로 가득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독자들에게는 역사로 통하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왕의 성격과 태도를 악의적으로 과장하는 부분을 무시해야 한다.”라고 대영제국의 솔로몬(제임스 6세) 저자인 마우리스 리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작가 스테판 A 코스톤은, 작가이고 법정 변호사이며 스탠포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로저 매그너슨이 자기 자신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를 인용합니다. 매그너슨은 “나는 제임스 왕에게 조준된 잔인한 비난을 입증한 어떤 사실적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썼습니다(Coston, pp. 225, 2134, 215, 324, 329, 258 n. 1). 윌리엄 샌더슨은 “왕은 잘 못된 소문으로 인한 평판을 진압하기 위해서 종교 안에서 자신이 거룩하게 생활하고, 드러나게 자주 기도와 설교를 훈련하고 그러한 지혜와 경건으로 정의와 자비를 수행하고 실행함으로써 그의 선행을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견해와 상식에 비추어 드러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Coston, p. 291). 그의 장례식에서 그는 “왕들 중에 기적 같은 인물이고 기적들의 왕”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영국이 처음으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 불린 것은 제임스 왕의 통치하에서였습니다(Bevan, pp. 12, 79, 201).

번역의 순서

1604년 1월에 제임스 국왕은 비숍 성경을 대체할 성경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해 6월까지 번역자들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들은 6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두 그룹씩 웨스트민스트, 캠브리지 그리고 옥스포드에 지정되었습니다. 1604년 가을에 번역자들이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 목록이 세워졌고 번역자들 각자는 규칙 8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자신의 위원회에 할당된 책들에 대해 자신의 제안을(장 별로) 써 내려갔습니다. 번역자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작업을 그들의 위원회와 나누기 위해서 매주 한번 만났습니다. 각 그룹은 이들 개인의 번역들을 합쳐서 하나의 공통된 번역을 만들었습니다. 규칙 9는 위원회가 책을 마치면 다른 동료들인 모든 회원들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칙 10은 다른 위원회 제안들을 검토해서 최초 제안한 위원들이 검토하도록 이유를 첨부하고, 수용하도록 요청하거나 만약 해결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최종위원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계획으로 각 단어가 14번 검토됩니다.

이전이나 이후의 다른 영어 성경 번역과는 다르게 규칙 11, 12, 13에 따라서 번역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사제들, 교수들, 교육 받은 사람들, 주교들, “모든”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까지 “왕국 모든 사람들”에게 번역을 공부해서 “우리가 말했던 번역의 의도들이 도움을 받았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논평을 보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누구든” 그 일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검토를 완성하기 위해서 각 동료들이 이 작업의 사본들을 만들고 전달했습니다.” “필사본들

은 왕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의 “정밀 조사를 위해서 준비되고 보내졌습니다.” “폭넓은 전반적인 정밀검토”를 위해 “이 왕국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유일한 방식입니다. KJB는 출판 전에 번역자들에 의해서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검토된 유일한 번역본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의 지체로부터 전반적인 회람을 거쳐서 나온 광범위한 제안들은 최초의 위원들에 의해서 검토되고 수용됩니다.

“감독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번역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던 많은 부분을 대체해서 변화시켰다.”고 옥스포드에 있는 구약성경 위원회의 브레트 박사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1608년 12월에 제임스 왕은 “성경의 번역이 가능한 빨리 완성되고 인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Ward Allen and E. Jacobs, *The Coming of the King James Gospels*, Fayetteville, AR: The University of Arkansas Press, 1995, p. 4; Bishop Bancroft cited in Alfred Pollard, *Records of the English Bible*, London: Henry Frowde by Oxford University Press, 1911, pp. 332-333, 53-55 et al.; Ward Allen, *Translating New Testament Epistles 1604-1611: A Manuscript From King James's Company*, Ann Arbor, MI: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77, pp. xxii, lxxxiv, xxiii, xii, xxvii et al.; EB, s.v. Bible, English, pp. 902-903 et al.).

여섯 위원회의 각 대표들은 위원회의 마지막 결과물인 비숍 성경에 주석을 달아서 세 권을 만들어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이들은 하위 위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주제들을 해결해 냈습니다. 1610년 첫 번째 9개월간 같이했던, 최종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

다. 이 그룹에서 확실한 참여자들은 앤드루 다운즈와 존 보이스였습니다. 이들 일반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세련되게 개선된 것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교 토마스 빌슨과 마일즈 스미스 박사는 최종 편집본 제작을 맡았고 인쇄업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1611년판 인쇄본이 세상에 나왔는데 두 개의 인쇄물은 옥스포드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초기 영어성경들처럼 이것도 킹제임스 또는 권위역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Holy Bible)이란 제목만 달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

KJB번역자들은 여왕 메리(reigned 1533-1588)의 추종자들의 박해와 종잡을 수 없는 헨리 8세(reigned 1509-1547)로부터 성경과 몸을 숨겨야 했던 부모님들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그 통치자들은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썼던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 문자로 꾸며진 고전적 언어로 된 성경만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요19:20, 눅23:38).

그러나 로마 가톨릭 통치자들은 중재자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즉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영어 성경을 모조리 태워버리려 했습니다(딤후2:5).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400년간의 성경의 열매는 번역자들이 꺼지지 않는 성령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해줍니다(갈5:22). 번역자들은 그 당시 영국에서 학문적으로 최고의 성취를 한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도 훌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학교 학장이나 학과장으로, 그리스어 또는 히브리어 분야나 학교에서 수장으로 위치를 닦아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설교자나, 목사, 박사, 학자 그리고 언어학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어와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고 외국어들을 말하는 것이 대학생들에게는 일상이었던 시기에 유사한 훈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지런함과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이 어울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들의 뛰어난 능력들은 당시의 초등학생들이 오늘날 대학생들 이상의 수준에서 교육받는 상황에서도 교육수준의 정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54명을 임명했습니다. 47명의 공식적 명단은 존재합니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회원은 아니지만 규칙 15에 의해서 요구된 가장 연륜 있는 학자 세 네 명을 포함해서 더 많은 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했던 빌슨과 반크로프트는 53번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빠진 54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단3:25). 다음으로 나오는 48명의 명단은 영국 박물관에 의해서 번역자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토마스 빌슨의 이름을 48명의 번역자 목록에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는 어떤 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그와 마일 스미스는 최종 편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목록에 포함된 사람은 이렇습니다. 1)웨스트민스터: 란첼롯 앤드루, 윌리엄 베드웰, 프랜시스 벌리헤즈, 리차드 글락, 제프리 킹, 존 레이필드, 존 오버롤, 배드리안 사라비아, 로버트 티규, 리차드 토마슨, 윌리엄 바로우, 윌리엄 다킨스, 로저 렌톤, 랄프 허친슨, 마이클 라베트, 토마스 샌더슨, 존 스펜서; 2)옥스포드: 리차드 브렛, 다니엘 리틀리, 존 하딩, 토마스 올랜드, 리차드 킬비, 존 레이놀드, 마일즈 스미스, 조지 에봇, 존 아글리온비, 존 하머, 레오날드 허튼, 존 페린, 토마스 라비스, 헨리 사빌리, 질레스 토마슨; 3) 캠브리지: 로저 앤드루, 앤드루 빙, 라우렌스 채덜톤, 프랜시스 딜링햄, 토마스 해리슨, 에드워드 리블리, 존 리차드슨, 로버스 스팔딩, 존 보이스, 윌리엄 브랜스웨이트, 앤드루 다운스, 존 듀폴트, 제레미 래드클리프, 사무엘 워드, 로버스 워드(*EB*, vol. 3, p. 902 et al.)

비록 원본의 목록에는 없었지만 존 아글리온비, 레오날드 허튼 그리고 윌리엄 톨슨이 번역 기간에 죽은 사람들(리차드 에드스, 에드워드 리블리,

랄프 헛치슨, 윌리엄 다킨스, 존 레이놀드, 토마스 라비스)을 대신했습니다. 다니엘 피틀리(영국 박물관의 번역자들의 목록에 있는), 아델 레이크, 제임스 몬테규, 토마스 스파크, 니콜라스 러브, 조지 리이브즈, 랄프 레이븐스, 그리고 윌리엄 에리르의 이름들은 후반 참여자로 추천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에 신화적 인물인 셰익스피어와 플러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KJB 번역자는 자신의 인장에 “그리고 이러한 일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비록 KJB 번역자들이 오늘날 전형적인 새역본 편집자들보다 더 위대한 언어적 기술을 타고나긴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는 않았다.”고 새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훌륭해 보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고 자신을 칭찬하기보다 진리를 찾는 일을 추구했다.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모였을까? 육신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 자신의 지식이나 그들 지성의 날카로움이나 아니면 판단력 깊이를 신뢰해서 모였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육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도 열거나 닫을 수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을 믿었다. 그들은 우리의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은 이런 확신과 이러한 헌신으로 함께 모였다”(The Translators). 번역자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께서 도우실 것을 갈망”했습니다. 번역자 란셀롯 앤드루는 기도로 하루에 5시간을 사용했습니다(The Learned Men, London: Trinitarian Bible Society, no. 25). 그들은 “우리가 진리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짓밟아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으로 업적을 가져왔다”(The Translators). 몇

몇 소소한 주석들이 성경에 더해졌는데 그것은 본문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The Translators*).

신약 위원회의 구성원인 윌리엄 발로우는 그의 인장에 새길 좌우명으로 다른 위원회 구성원들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눅14:10)를 선택했습니다. 사무엘 워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McClure, p. 151).

번역자들은 혼을 얻어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혼들을 위한 존 오버롤의 부담은 그를 신부 헨리 가르넷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가르넷이 화약음모사건에 연루되어서 살인자가 되어 교수형에 막 처해지려 할 때였습니다. 오버롤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표현할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드리안 사라비아는 건지 섬과 저지 섬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자리잡았습니다. 존 레이놀드는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였고 공개적으로 정통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톨릭주의자들과 공개토론에서 성공적으로 이겼습니다. 몇 명의 “예수회 가톨릭 신자에 의해서든” 아니면 그밖에 다른 사람 의해서 “고의적으로 쓴 화살”이 그를 공격했지만 실질적인 상처를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가 임종할 때 그는 “이것들은 내가 오직 그리스도 내 구원자의 공로로 이루어진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나의 설교와 나의 글들 속에서 내 전생애 가르쳐왔던 그 믿음의 소유 안에서 죽는다는 것을 모든 세상에 간증하려 하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의 간증을 기록했습니다(Paine, pp. 23, 25; McClure, pp. 98-102).

리차드 킬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을 잘 상고해 보라. 당신이 죄로 인해 마귀와 같이 되었을 때 그리고 지옥의 고통들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분께서는 육신과 혼을 가지고 당신의 사면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속박에서 당신을 사오기 위해서 지극히 잘못되었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새롭게 되었고 결국 당신은 하늘의 기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에 합당하게 되었다”(Paine, p. 48).

베드로전서 3:21에 있는 번역자들의 주석은 그들이 오늘날 영국 내 영국 성공회 교인들이나 미국 내 영국성공회 교인들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하는 것 같이 침례로 거듭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혼은 물로 씻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록했습니다(Ward Allen, *Translating For King James: Notes Made By A Translator of King James's Bible*, Nashville, TN: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69, p. 93).

영국 교회의 종교기사 서른 아홉 개는 그 당시에 “유아” 침례를 믿음의 또 다른 고백으로 여기던 것과 다른 입장을 취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습니다(e.g. Heidelberg Catechism, 1563). 그들은 침례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시로 여겼습니다(Article 26). 오늘날의 침례교도들과 같이 그들은 “어린 아이들”의 침례를 허락했지만 유아들은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영국 개신교 진실 사회’의 알 제레미 책들은 “오늘날은 보통 물을 뿌리는 반면 그 당시에는 물에 잠기는 것이 일상이었

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letter to Alan O’ Reilly on file).

번역자들의 믿음은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보이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 교회에 가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보이스는 에라스무스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또는 번역해 왔습니다. 성경이 교회의 강대상에 묶여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는 달리 보이스의 어머니는 “성경을 열 두 번 이상 읽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존 보이스는 “그가 다섯 살이 되던 해에 성경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개인 조교를 아버지로 둔 친구와 함께 대학에 갔습니다(*Translating For King James*, pp. 129, 130, 131). 라우렌스 채덜톤은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이탈리아어에 능숙했지만 이 사람은 매우 “겸손한”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설교자”라 불렸습니다. 그는 103세의 고령까지 살았는데 한 전기작가가 언급한 것처럼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 때문인 것 같습니다(시41:1, 2). 토마스 홀랜드는 “그가 성경을 위해 일했던 기간에도 그는 열성적인 기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습득한 언어와 모든 예술과 과학들에 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성경에도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McClure, p. 105; Paine, p.47).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이야기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KJB번역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지만 그것들에 관해서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고전적이지 않습니다. 이들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이 없이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책

을 만들어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지난 400년간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폭넓게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살전2:13)

KJB번역자들의 자료들과 방법들

일반적으로 초기 영어 성경들은 동일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귀”에 “확정” 되어 있었다고 워드 알렌 교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 개신교 번역본들부터 권위역본에 이르기까지 본문에서 변경된 것들은 미세하다 (Allen, *Translating For King James*, pp. 16, 20).” 바뀐 부분의 대부분은 오래 전디는 구조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약한 표면을 다듬은 형태를 가진 것뿐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독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서문에 “이미 건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그리고 우리의 편집본들의 하나 또는 다른 것들의 내용이 모두 건전하고) 똑같은 것은 문지르고 광만 내면 금같이 더 밝게 빛날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cited in Allen, *Translating the New*, p. lx). “금을 제련하는 용광로”에서 영어 성경이 일곱 번 정제되었던 “흙 도가니”였습니다. KJB는 그 일곱 번째였고 마지막 정제입니다(잠17:3, 시12:6). 이것은 여섯 가지 이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1)고트어, 2) 앵글로 색슨어, 3) 위클리프 이전(앵글로 노르만), 4) 위클리프, 5) 틴데일-커버데일-그레이트-제네바 그리고 6) 비숍 성경

번역자 헨리 사빌레는 초기 영어 성경 필사본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초기 역본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비드(Bede) 이전 영국 역사를 기록한 초기 필사본으로부터 출판한 경험이 있습니다. KJB 번역자들은 일반적으로 비숍 성경의 문법적 요소와 단어 순서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기본이었고 그들은 좀처럼 그 기준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꾼 것은 단어들과 절들을 포함해서 작은 변경이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단어들은 보통 원본에는 없지만 틴데일, 커버

데일, 제네바 그리고 그레이트 성경과 같이 초기 영어 성경들로부터 가져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2:13의 예는 KJB 번역자들이 비숍 성경의 단어 순서를 조금 바꿨다는 몇 안 되는 예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단어의 순서를 변경했을 때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초기 영어 성경의 단어 순서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그들은 제네바 성경을 따랐습니다. 가끔 그들은 그들 자신의 단어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그들은 그들 자신의 단어들 중에 단지 하나만을 소개했습니다(보이는 낱자들은 초판 낱자일 필요가 없이 인쇄 낱자로 표기된 낱자입니다.). **위클리프 1395:** Therfor we doon thankis to God with outen ceessyng. For whanne ye hadden take of vs the word of the heryng of God, ye token it not as the word of men, but as it is verili, the word of God, that worchith in you that han bileued. **틴데일 1530-1534:** For this cause thanke we God with out ceasyng because that when ye received of vs the worde wherewith God was preached ye received it not as the worde of man: but even as it was in dede the worde of God which worketh in you that beleve. **커버데일 1535:** For this cause thanke we God without ceassyng, because that when ye receaued of vs the worde of the preaching of God, ye receaued it not as the worde of men, but (eue as it is of a trueth) the worde of God, which worketh in you that beleue. **비숍 1568:** For this cause thanke we God also without ceassyng, because ye receauyng the worde which ye hearde of vs concerning God, ye receaued it not as the worde

of man, (but as it is in dede) the worde of God, which effectuously worketh also in you that beleue. **제네바 1599:** For this cause also thanke wee God without ceasing, because when yee receiued the word of God, which yee heard of vs, yee receiued it not as the worde of men, but as it is in deede the word of God, which also worketh in you that beleue. **킹제임스성경 1611:** For this cause also thanke wee God without ceasing, because [Tyndale][KJB] when yee receiued [Tyndale] the word of God, which yee heard of vs, yee receiued it not as the word of men, but(as it is in [Geneva] trueth), [Coverdale] the word of God, which effectually worketh also in you that beleue [Bishop’].

KJB 번역자들의 방법과 생각들이 우리 세대에 오기까지 잊힌 상태에서 수백년 동안 수많은 공격들이 KJB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롬5:20) KJB위원회의 번역 주석을 보여주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네 개의 주요 기록들이 있는데 몇 개는 최근에 발견된 것이고 번역자들의 생각이 문서로 된 것입니다.

1.) 비숍 성경의 1602년 인쇄본 40개가 번역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단지 한 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Bib. Eng. 1602 b.I.”로 분류된 비숍 주석 성경이 영국의 보들레이안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석된 비숍 성경은 지워진 단어들과 행간이나 여백에 표시된 변경사항과 함께 본문을 보여줍니다. 2.) 필사본 98은 웨스트민스터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서신서들의 시험 번역(1607-1608)입니다. 3.) 1640년 총회에 의해서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작업을 보여주는 KJB 번역자인 존 보이스의 자필 영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 주석, 그리고 4.) 마일즈 스미스에 의해 1611년판 킹

제임스 성경에 있는 번역자들이 독자에게 쓴 서문. 이러한 문서들은 KJB 번역자들이 오늘날 새 역본에 사용한 단어들을 심사숙고해서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 문서들은, 오늘날의 번역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가 능이나 할까 싶은 그리스어 또는 토착어 번역들의 귀중한 고문서와 발굴물 을 KJB 번역자들이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KJB 번역자 존 보이스는 자신이 위원으로 있는 마지막 위원 총회의 생 각과 관련해서 39 쪽 분량의 문서를 기록했습니다. KJB번역자 몇 명은 1610년과 1611년 사이에 9개월간 만났습니다. 보이스의 문서에 따르면 번 역자들의 자료 몇 개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베자와 고문서의 그리스어 (이 자료를 보면 그들은 데오도로 베자(Beza, *Iesu Christi Domini Nostri Novum Testamentum*, Genneva: Sumptibus Haered. E. Vignon, 1598 et al.)의1598년 그리스어 인쇄본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대 육필로 된 신 약 고문서들도 사용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3:5에 관 한 그들의 주석은 “다른 필사본에서”(Translating For King James, pp. 89, 20, 101)라고 기록하고 있고, 2.)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예를 들 면 딤전 4:6)(*Novum Instrumentu omne, diligenter ab Erasmo Roterodamo recognitum & emendatum... Basileae, in aedibus I. Frobenij, Mense Februario, 1516; Translating For King James*, p. 119), 그리고 3.) 최고의 주요 자료들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KJB 번역자들은 고대 저자들의 최 고의 전체 작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고대 작가 들의 전체 작업 상황과 거리가 멀었고 초기 편집본의 문맥에 있는 단어들 을 공부도 하지 않고 현대 어휘들로 영어를 해석하는 것에만 기대는 근대 번역자들과는 다르게 그것의 전체 문맥 속에 있는 문제가 있는 어떤 단어

도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의 자서전 작가는 “그가 대학을 떠날 때 그는 다소간의 그리스어 저작물 몇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개인 도서관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들이다”(Translating For King James, p. 138)라고 했습니다. 보이스는 엄청난 그리스어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단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의 눈에 영어 성경을 간접적으로 펴하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그의 전기 작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에서 그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萬) 가지를 말하기보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섯 개의 단어로 말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Translating For King James, pp. 150, 151). KJB 번역자들은 이들 초기 자료들을 취급했기 때문에 많은 번역자들이 그들 자신의 어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윌리엄 베드웰은 7개국 언어로 된 어휘집 저자였습니다. 이 책은 7권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시리아어, 갈대아어, 그리고 아랍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번역자들은 “기독교계의 최고 도서관에서 발견되는 크리스토포모스[가장 헌신했던 초기 기독교 목사이고 작가]의 최고 필사본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사본 속에서 그 크신 아버지의 위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빌레]라는 학자는 바다 건너에 있는 최고 원형을 얻기 위해서 8000L 이상을 지불했습니다”(Translating For King James, pp. 141, 142). 1600년대에 한 작가는 고대 기독교인들의 최초 기록들을 수집하고 공부하는 데 쏟은 사빌레의 노력과 고통과 엄청난 수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Translating For King James, p. 141). 사빌레는 크리스소스톰의 글들을 S. Johannis Chrysostomi Opera, Graece라는 제목을 붙여서 8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이 책들은 이튼 대학에 의해 1613년에 인쇄되었습니다. 많은 성

경의 인용을 포함하고 있는 크리스소스톰의 필사본들은 번역자들이 그리스 단어들의 사용을 결정하는 것을 돕는 것 이외에 진짜 고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읽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크리스소스톰은 부패한 바티칸 새 역본과 시내사본이 기록된 시기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의 올바른 신앙관 때문에 그의 성경 인용들은 새 역본인 이 두 개의 부패한 필사본보다 더 권위 있고 그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번역자들의 자료들은 오래된 지붕이 있는 다리와 같아서 초기 탐구가들에게 그리스어, 히브리어, 고트어, 라틴어 그리고 앵글로 색슨어부터 영어까지 살펴보는 데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세심한 노력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스럽게 일곱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된 영어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에 도달했고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들 위에서 외치는 지혜와 같이 1921년 11월에 발행된 대중 잡지인 레이디스 홈 저널(Ladies Home Journal)이 예일대 교수 윌리엄 리온 펠프스가 쓴 “성경 속 인간의 본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그의 기사는 “우리의 영어 번역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보다 더 좋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나는 성경의 영감이라 불리는 것을 설명할 아무런 이론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나는 권위적인 KJB가 영감 받은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대중들의 견해를 표현했습니다(pp. 8, 166, 167).

번역의 규칙들에 따르면 번역자들의 최종 권위는 초기 영어 성경들이었습니다. 특히 비숍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현대 역본 번역자들이 말

하는 것처럼 참신함이 있다거나 또는 개인적 해석이라는 어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KJB 번역자들은 순수한 성경들인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토착어 모두를 보았습니다. 고대 언어들 뿐 아니라 그들은 우리 자신의 것과 우리보다 앞서서 간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다른 외국 언어들로 된 것 모두를 비교하는 수고로운 작업을 했습니다(Holy bible, 1611, London: Barker, “*The Epistle Dedicatory*”). 그들은 성경이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용된다는 것과 잘못된 정교회는 그들의 교리적 오류 중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삭제된 사본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예: 행8:37, 요한일서 5:7 등). 번역자들은 만약 한 그리스어 자료가 어떤 면에서 뒤죽박죽으로 보인다면 그들은 다른 필사본의 절들과 토착어 역본들을 찾아 본다고 진술했습니다. 로마서 12:10에서 앤드루 다운즈의 대조를 근거로 볼 때 그들의 주석들은 구절이 “그리스어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것은 아닌지” 해석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Translation For King James*, p. 43).

대영제국의 도서관과, 제임스 왕 1세와, 그리고 번역자들은 고대와 중세의 많은 성경들을 전 세계에서 구해서 KJB 번역자들의 손끝으로 가져다 뵈었습니다. 오늘날의 번역자들은 아무도 그러한 진본에 접근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오늘날 번역자들은 가끔 지구 상에 있는 어떤 필사본도 따르지 않고 인쇄된 교정판을 사용합니다(예 그리스어, 시리아어,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등). ‘역자가 독자에게’ 라는 책에는 수많은 성경들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900년대판 “아직 현존하는 네덜란드 운율 성경”, “아직 많은 사본이 남아있는 번역본” 뿐 아니라 1300년대에 “번역되어서 손으로 기록된 많은 영어 성경들” 그리고 1300년대판 프랑스 성경과 같이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앞선 영어 성경들과 더불어 이런 보물 같은 본문들은 KJB 번역

자들에게 세상에 퍼져있는 권위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제공해 주었고 그들은 성경 본문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들은 몇몇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성경의 인쇄본과 고문서들에서 아주 미세한 오류들까지 찾아 내게 되었습니다. 구절을 번역하고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성경에서 다른 구절들을 대조하고 다른 성경들과도 비교했습니다. 많은 세기를 거쳐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 단체들의 믿음의 성직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동의된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하나의 언어로 된(예를 들면: 그리스어) 또는 하나의 그리스어 판본으로 된 또는 하나의 교회 지체(예: 정교회Greek Orthodox)가 만든 하나의 판본(예: UBS, scrivener[TBS], Stephanus)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KJB 위원회는 오래된 외국어로 된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전의 것은 프랑스어 제네바 성서이고(1587/88), 올리브탄(1535), 파소르스(1588), 스페니쉬 발렌시아(1478), 파이넬(1535), 디 레이나스(1569), 디 발레아(1602), 그리고 브루치올리 또는 디오다티의 이탈리아어(1607) 성경입니다. 또한 번역자들은 1575년의 애티워프의 폴리그랏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어, 히브리어, 시리아어,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덴마크어, 보헤미안어 그리고 폴란드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는 모든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였습니다. 오래된 순수한 이탈리아어를 보존하고 있는 베자의 라틴본문은 때때로 가장 오래된 본문 독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존 셸든은 식탁 좌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왕 시대에 번역은 최고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성경 각 부분은 그렇게 최고 실력의 언어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만나서 한 명이 그 번역을 읽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배웠던 언어[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또는 프랑스어, 이탈

리아어, 스페인어 또는 다른 언어들로 된 성경들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다면 그가 읽는 걸 멈추도록 말합니다”(Paine, p. 77).

‘역자가 독자에게’ 라는 글에서 “만약 당신이 그들이 그들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구약의 히브리 본문과 신약의 그리스어 본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자들 또는 해설자들에게 갈대아어, 히브리어, 시리아어,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뿐 아니라 스페인어, 프랑스어 또는 네덜란드어에 관한 의견을 물을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The Translators). 번역자들 대부분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혈통의 KJB 번역자인 하드리안 사라비아는 프랑스어를 말하는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홀랜드 거주자로서 덴마크어를 사용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제목이 있는 표지에 “신약성경은 또한 그리스어 원본에서 번역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번역자들이 문서화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견된 막달라 파피루스인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신약 조각은 KJB와 일치하지만 새 역본 중에는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필사본들과 천 년간 유럽의 중추가 되었던 인쇄본(구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어, 고트어, 덴마크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본)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그리고 중세 토착어 성경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해석,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부당하게 논쟁이 된 부분에 대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성경들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KJB를 오늘날의 비판학자들에 의해서 최고로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번역자들의 토착어 성경의 사용은 커버데일(독일어, 스위스어 등), 로저(독일어), 그리고 데오도르 베자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그리스어 그리고 토착어 역본들 특히 시리아어와 아람어의 라틴 역본을 대조한 것을 사용해서 편집했습니다. 종이가 비싸고 백성들이 가난하고 박해가 심했던 나라들에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억했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사본들이 보존되어 왔습니다. 번역자들은 “성경”이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진 이후 세상에 있어왔던 그대로 어렵지 않게 재생하였습니다.

KJB와는 달리 현대 역본들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같이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했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담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골1:5, 6). 예를 들면 요한복음 4:42에서 KJB는 “Christ/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1599년 뉘른베르크 다중언어 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christos), 구 라틴어로 (Christum), 독일어로 (Christus), 덴마크어로 (Christus), 스페인어로 (Christo), 프랑스어로 (Christ), 이탈리아어로 (Christo) 그리고 다른 언어들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처럼 이 구절에서도 NIV, TNIV, NASB, HCSB, ESV, NRSV, RSV, 로마 가톨릭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역본들에서는 단어 “그리스도(Christ)”를 삭제했을 뿐 아니라 NKJB 요한일서 2:22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그는 적그리스도니라.”라는 구절에 달아 놓은 주석에서까지 삭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29에서 기도“와 금식(and fasting)”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와 라틴어(& ieiunio), 그리고 프랑스어(& pariufine), 독일어(und faften), 이태리어(e digiuno) 그리고 스페인어(y ayuno)와 같이 고대 언어들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KJB에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금식(and fasting)”이라는 단어가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진 성경을 종종 따르지 않는 새 역본들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KJB는 지금 대부분의 새 역본들에는 삭제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순수한 역본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삭제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1) 그리스도의 신성(딤후3:16, 엡3:9, 요일4:3), 삼위일체(요일5:7), 속죄의 피(골1:1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막10:24, 행8:37, 요6:47), 그리고 17개의 전체 구절들(즉 마17:21, 18:11, 23:14, 막7:16, 9:44, 9:46, 11:26, 15:28, 눅17:36, 23:17, 요5:4, 행8:37, 15:34, 24:7, 28:29, 롬16:26 그리고 요일5:7)

KJB는 “주(Lord)”를 66번 “하나님(God)”을 51번, “하늘(heaven)”을 50번, “회개(repent)”를 44번, “피(blood)”를 23번 그리고 “지옥(hell)”을 22번 삭제한 NKJV와는 다르게 초기 모든 영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NKJV는 단어 “여호와(JEHOVAH)”, “새약속 언약(new testament)”, “정죄(damnation)” 그리고 “마귀(devils)”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찮은 종으로(행3:13, 26, 4:27, 30) 폄하하고, 오역하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히4:8, 행7:45) 그리고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계19:8, 고전1:18, 고후2:15, 롬11:30, 32 등) NKJV와 다르게 KJB는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현대 역본의 수많은 오류 중에 단지 몇 개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예들과 상세한 검토는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어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위험한 자료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연구의 위험성들” (G. A. Riplinger, Ararat, VA: AV Publications)를 보십시오.

KJB 번역자들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을 번역하며 기록된 형태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번역자들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들을 얼어붙은 얼음이나 돌문처럼 뚫을 수 없는 장벽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묵상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닫혀 있는 상태로 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도들은 오래된 히브리어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스어를 포함한 어떤 언어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언어들 속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분명히 귀머거리다”(번역자들). 또 다른 측면은 그들이 영어역본을 “빛”(시119:105)이시고 거룩한 성경 기록(딤후3:15)들이고 말씀의 물(엡5:26)이신 “그분의 말씀”과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번역은 빛 속으로 인도하는 창문을 여는 것이고, 껍질을 깨는 것이고, 우리가 알맹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성소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휘장을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물가에 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의 덮개를 제거하는 것이다”(번역자들). 그러므로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그들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얼음을 깨고 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가가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책을 전달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번역자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요6:63). 성경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록된 형태로 요한일서 5:8에서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라고 말했던.”땅의 증언”이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영으로 영감받았습니다(심지어 비숍 성경도 “he came by inspiration [by the Spirit] into the temple/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 왔다” (눅2:27)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보존과 번역은 하나입니다. “...세 겹 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4:12). 번역(Translation)은 생명을 가져오고 죽음을 막아 줍니다. 에녹은 “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히11:5).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분해된 최초 필사본들과 도서관에서나 힘들게 찾아볼 수 있는 비평서들은 목표 없이 허공에 쏘아 올린 화살과 같습니다(고전14:9). 최초 필사본이 껍질을 부순 것처럼 오직 그것의 껍질이 벗겨질 때 힘이 생기고 생명이 드러나서 열매를 맺고 유익한 음식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딤후3:16).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는 생명을 내는 씨를 품게 됩니다. 이 씨들은 결국 다시 한 번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게 유지시킵니다.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의 작가인 존 버니언은 번역된 말씀을 위해 번역자들의 땀을 들었습니다. “캠브리지 근처 거리에 있을 때 그는 한 학자와 마주쳤는데 그가 ‘당신은 어떻게 감히 원본을 갖고 있지도 않고 학자도 아니면서 성경으로부터 설교를 합니까?’ 라고 말을 건네 왔습니다 버니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자

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원본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니언은 ‘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 진짜 원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버니언은 “병든 거지들(나사로)은 그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경고할 수 없다는 말이군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디오 빌라도와 히브리어나 라틴어로 대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라고 기록했습니다(A Few sighs from Hell). 학자들은 KJB 번역자들을 “냉혹한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그 어설픈 설교자를 공격하며 온갖 모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마녀, 궤변가, 노상강도 등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가 동시에 두 명의 아내를 가져서 총체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W. B. Creary, *John Bunyan the Immortal Dreamer*, Anderson, IN: Gospel Trumpet Company, 1928; *Works of John Bunyan*, Vol. 1, Part A, BiblioBazaar, 2008, p. 101 et al.).

KJB 번역자들 중에 하나인 리처드 킬비가 지방 교회를 방문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의 “특정한 말씀이 다르게 번역(translated)되어야 할 세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그에게 할애된 설교 시간의 대부분을 낭비할 정도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한 젊은 설교자를 발견했습니다. 킬비는 그 목사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그에게 “당신은 최근 번역과 다른 불필요한 예외들로 청중들의 귀를 채우지 말고 좀 더 유용한 교리를 설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3가지 이유를 대면서 왜 이렇게 번역되었는지 부족한 청중들에게 언급했던 그 단어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검토하였었고 왜 지금의 인쇄본처럼 사용했는지 13가지 이상의 이유를 찾아내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Reported in Walton’s biography of Bishop Sanderson; McClure, pp. 107, 108).

성경 비평의 효과는 청중들이 사람들의 말에 대한 믿음을 높리게 되는 반면 “모든 말씀”은 “완전”하고 “심히 순수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줄어 들게 만듭니다(시19:7, 119:140, 잠30:5). KJB 번역자들은 이것을 비판을 통해 영어 성경 전체를 조각조각 불태우려는 로마 가톨릭의 악습이라고 불렀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성령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존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사람들과 그 외 많은 사람들이 번역된 말씀을 감히 불태우고 듣기를 거부하고 성령의 은혜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영어 성경 또는 그 일부를 오용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The translators). 번역자들의 주석들은 왜 그들이 같은 그리스어 단어들을 다르게 번역했는지(베드로전서 1:23-25처럼) 또는 왜 같은 영어 단어가 때때로 하나 이상의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11에서 한 해석이 그 구절의 의미가 “...이 해석을 의미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Translating For King James, p. 47).

위클리프처럼 번역자들은 한 단어의 정의는 그 단어의 “형제급”이나 “이웃”의 단어들을 찾아서 “장소들을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성경 자체에 내장된 동의어 사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The translators). 번역을 하는 규칙들은 제임스 왕 1세가 “한 성경 구절을 다른 구절과 비교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비교의 중요성을 기록하였습니다(Translating For King James, p. 140). 틴데일의 서문은 이에 동의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그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앞 뒤 주변의 단어들과 구절을 함께 보면 그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Tyndale, New Testament, 1530-1534, digitized Chadwyck-Healy, pp. 1, 2).

커버데일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의 본문이 다른 본문을 당신에게 해석하게 하라…. 그대로의 본문이 당신을 이끌게 하라. 그러면 그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모든 진리로 당신을 이끌실 것이다”(Dore, 2nd ed.).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경이 한 곳에서는 불분명하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같은 말이 다른 곳에서 좀 더 분명한 단어에 의해서 더 일목요연하게 해석되므로 그 뜻이 분명하게 된다. 번역자들은 나 이전에도 그와 같이 해왔다. 단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소망은 그분의 백성이 이해하는 데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무엇이 언급되고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뿐 아니라 누구의, 누구에게, 무슨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피면서 표시해 간다면 당신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받을 것이다”(The Holy Bible 1535, Chadwyck, pp. 10, 7).

여덟 번이 아닌 일곱 번 정화된

KJB 번역자들은 영어성경에 더 이상 손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번역의 최고 감독자는 “만약 모든 사람의 취향을 따라가다 보면 번역의 끝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그렇게도 많고 다양한 판본들을 스스로 만들어 내니 그 성경들의 가치와 권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The translators). KJB 성경의 번역자들은 그들의 번역본이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영어 번역본들의 사슬 중에 있는 하나의 역본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성경이 “이 단어나 저 단어만 빼면 좋겠군”하고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용납되는 성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좋은 성경들[Wycliffe, Tyndale, Coverdale, Great, Geneva, and the Bishops’]로부터 그리고 그 성경에서 뺄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제대로 된 단 하나의 성경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목표”라고 계획한 것이었습니다(The translators). 번역자들은 그들의 번역은 “완벽”했다고 말했습니다(The translators). 그런데 “번역자들이 독자에게”라는 제목의 토마스 벨슨판이 KJV와 NKJV를 대조한 성경으로 출간되면서, 번역자들이 사용한 “완벽한(질적인 형태)”이란 단어를 “완성된(양적인 형태)”이라고 바꾸면서 그들의 작업을 왜곡시켰습니다.

KJB 번역자들이 그들의 편집본이 “완벽”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새 역본의 번역자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Nashville, TN: Thomas Nelson Publishers, 1991, p. xiv). 대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개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1611년에 KJB가 출간된 후에 KJB 번역자들 중 두 명인 존 보이스(John Bois)와 사무엘 워드(Samuel Ward)와 몇몇 다른 사람들은 1629년과 1638년에 출간된 KJB본문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검증하는 일에 관여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뀐 부분은 세 가지 유형입니다. 1) 1612년 글자 형태(고트체에서 로마체로), 2) 1629년과 1638년 입력오류와 철자법 수정(대문자와 철자), 3) 1762년과 1769년 철자 표준화.

첫째 변화는 글자체의 모양이었습니다. 1611년 판은 중세 시대의 손으로 그린 듯한 필사본을 모방하기 위해서 옛 방식의 화려하게 장식된 글자모양을 사용해서 인쇄되었습니다. 1611년에 인쇄된 몇몇 글자들은 1612년 인쇄본에 사용된 로마체와 달라 보였습니다. 소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611년 판에서 소문자 ‘s’가 단어의 시작이나 중간에 사용되었을 때 형태가 우리가 아는 로마체 ‘f’와 같아 보였고, ‘v’는 오늘날의 로마체 ‘u’처럼 보이고 반면에 ‘u’는 오늘날의 ‘v’처럼 보였습니다(즉 “the fame fhall be faused”의 소리는 오늘날의 “the same shall be saved”와 같다). 단순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둘째 변화는 철자법을 바르게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1629년과 1638년에 사무엘 워드와 그의 동료 번역가인 존 보이스는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철자법을 바로잡은 KJB 출간을 위해서 1611년 이후 수정된 오타자를 찾기 위한 교열을 보았습니다. 워드(Ward)와 보이스(Bois)가 초기 위원회에 참여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인쇄한 사람들의 실수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KJB 번역가들의 의도했던 본문과 다른 100군데 이상의 인쇄 오류가 1611년 인쇄본 두 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의 KJB와 대조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차이점이 1611년에 나오는 두 판본의 글자체를 설정하면서 발생한 철자법의 오류였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1611년판

KJB는 오늘날 KJB와 136곳이 다르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명이 열악하고 맞춤형 안경도 아직 발명되지 않은 시대에 각각의 철자가 손으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전체 철자법 오류의 수는 적습니다.

명사를 대문자화하는 게르만어의 특징은 1611년 인쇄본 몇 군데에서 아직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629년 판과 그 후에 나오는 판본들에서 여러 군데 영어의 올바른 표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철자의 표준화입니다. 영어 철자는 1700년대 말까지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같은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서도 철자가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로단 좌우를 정렬하기 위해서 철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철자가 두 번 반복되기도 했고 ‘e’는 자주 추가되었습니다(예: ‘shew’가 ‘fhewe’ ‘days’가 ‘dayes’로 그리고 ‘Son’이 ‘Sonne’로). 캠브리지의 토마스 파리스(Thomas Paris)교수에 의해서 KJB의 철자의 표준화·통일화 작업이 1762년 시작되었으며 옥스퍼드 벤자민 브레이네이 박사에 의해서 1769년에 최종적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629년과 1638년에 철자를 바로잡은 판본과 1762년과 1769년에 철자가 표준화된 판본들은 마치 KJB가 “조금의 부정확한 것들”과 “그것의 영어 형태”를 바로잡는 여러 번의 개정이 진행되어 왔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KJB의 개정본이라고 잘못 불리고 있었습니다. “KJB의 본문에 어떠한 개정도 없었다.” 1852년에 미국 성서공회 이사진은 KJB의 본문을 철저히 검사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번역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영어 성경은 그 본문에 관한 한 바뀌지 않은 채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영어에서 그 철자의 형태나 철자의 오류를 제외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의 내용

은 번역자들이 남긴 최초의 사본과 차이 없이 바뀌지 않고 남아 있다(*Report of the Committee on Versions to the Board of Managers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1852, pp. 7, 11).”

왜 하나님께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키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사용하게 하신 걸까요? 다음의 특징이 킹제임스 성경과 사람들이 만든 현대 위조품을 구분 짓게 합니다. 1) KJB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출간 되기 전에 번역자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에 관심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참여시킨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영어 성경들 중에 아주 특별하게 일곱 번 다듬어진 영어 성경입니다(시12:6). 이 성경은 단 한 사람에게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았습시다(욥7:2).

2) KJB는 잇따르는 철자의 소리, 음절, 단어들, 품사들, 그리고 어순들을 주의 깊게 조율하면서 의미와 암기를 향상시키는 유일한 현존하는 영어 성경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계신 말씀인 KJB는 “거룩하고, 무해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높여진 성경입니다(히7:26). 이 성경은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히7:26)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살아계신 말씀으로 간주되는 “순수한 말”(슥3:9)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영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한 독특한 간결성을 지닌 특별한 어휘들로 균형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KJB는 비숍 성경의 구절인 ‘good tidings’ 을 가져가서 “gospel” 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good tidings” 보다 짧아져서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Gospel’ 은 ‘news’ 를 듣는 단어가 아니라 거룩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비숍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 죄인들로부터 분리

간혹 KJB가 영어 성경이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일련의 성경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영어라는 언어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초기, 중기, 그리고 최근 영어 순으로) 역사를 거친 것처럼 영어 성경도(위클리프, 틴데일, 그리고 KJB순으로) 인쇄본과 함께 발전하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몇몇의 사람들이 성경들의 단어와 단어를 그대로 분석해 보지도 않고 가정하는 것처럼 KJB의 언어가 비숍 성경과 그 이전 성경들의 언어들을 개선시킨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숍과 초기 영어 성경들이 평범한, 즉 아주 쉽고 평이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들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KJB보다 더 단순한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드물게 KJB는 비숍 성경의 옛날 방식의 구절을 바꾸었는데, 비숍 성경 누가복음 19:8에서 “forged cavillation(거짓 고소)”라는 단어를 좀 더 쉬운 “false accusation”으로 또는 비숍 성경 누가복음 23:34에서 “they wote not”을 KJB에서 “they know not”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KJB 앞에서 영어 성경의 단어를 문자 그대로 대조하는 분석은 성경의 용어가 구식 영어라는 신화를 무너뜨립니다(See In Awe of thy Word.). 초기 영어성경들은 더 간단한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메모 수준의 어휘로 간단히 적힌 오늘의 성경을 원하셨다면, 그분께서는 틴데일이나 비숍 성경을 그대로 남겨두셨을 겁니다.

비숍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오늘의 일상 언어입니다. KJB에

있는 단어들은 항상 일상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신 말씀처럼 “무해하고,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더 높여...”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KJB의 몇몇 단어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KJB에서도 그와 같이 단어들을 대체했던 것을 상기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1611년에 비숍 성경의 간단한 단어 “appeared”가 “appeareth”(마 2:13)가 되었고 “put”는 “layd”(마 3:10)가, “lift”는 “beare”(마 4:6)가, “hurt”는 “despitefully use”(마 5:44)가, “pull out”은 “cast out”(마 7:5)가, “And saying”은 “beseeching him”(마 8:5)가, “sorrowed”는 “lamented”(마 11:17)가, “easier”는 “more tolerable”(마 11:22)가, 그리고 “given”은 “delivered”(마 11:27)가 되었습니다. 초기의 영어 성경들과 같이 비숍 성경은 진실로 향상된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더 나빠지면서 하나님께서는 KJB를 위해서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어휘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필사본 98은 KJB 번역자들이 오늘날 새 역본들에서 보여지는 단어들을 고민했지만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NIV에서도 지금 사용되는 비숍 성경의 “clothes”를 “apparel”로 향상시킨 것을 보여줍니다(벧전 3:3). 오늘날 ESV와 NASB에서 사용되는 비숍의 “For truly”는 “For verily”로 향상되었습니다(마 5:18). 오늘날 NKJB와 HCSB에서도 사용되는 비숍의 “the lovly”는 “them of low degree”로 향상되었습니다(눅 1:52). 누가 복음 1:54에서 KJB는 비숍 성경의 “helped”를 일반적으로 오직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인 “holpen”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예상된 생각과는 달리 ‘helped’라는 단어는 ‘holpen’에 대응하는 현대어가 아닙니다. ‘help’라는 단어는 두 단어(helped holpen)보다 더 오래된 단어이고 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합니다. 사실상 AD 950년에 린디스파네 가스펠즈(Lindisfarne

Gospels)가 “milsa us vel help…”(마20:30)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Charles Hardwick [Skeat],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58, p. 157 et al.). KJB는 ‘help’ 와 ‘helped’ 를 ‘holpen’ 보다 더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의 확장된 어휘들은 가끔 “holpen”을 포함합니다. 물론 KJB는 다니엘서 11:34에서 “holpen with a little help” 처럼 내장사전으로 ‘holpen’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영어에서 “holpen”이 독일어의 ‘helfen’, 네덜란드어와 저지 독일어의 ‘helpen’과 그리고 이디쉬어(원래 중앙 및 동부 유럽에서 쓰이던 유대인 언어)의 ‘helfn’과 서로 상응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 음절의 단어가 운율을 위해서 필요하면 누가복음 1:54에서처럼 두 음절을 가진 ‘holpen’이 ‘h,’ ‘i,’와 ‘is’의 두운이 일치되게 할 뿐 아니라 “hath hol’ -pen his ser -vant”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반복해서 실리는 운율이 생기게 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고(요1:1)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계19:13)**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과 같습니다. 그분은 “거룩”(행4:27)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경”입니다(롬 1:2, 딤후 3:15).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왕에 비유되었습니다(히7:22). 킹제임스 성경은 “더 나은 상속 언약”입니다. 이 성경의 오랜 지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할 수 없고 무궁한 생명의 초상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 분으로 불립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경”은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것과 같아야만 합니다. 그것의 “순수한 말씀들”은 세상적인 사용으로 오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은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는 1500년대와 1600년대에서조차도 일상어가 아니었습니다. KJB는 지

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불필요한 첨탑은 없이 궁궐의 양식대로 빛나게 다듬어져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귀중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단어들로 모든 면에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시144:12).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어리석은 생각이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물든 혼을 볼 수 있는 것은 성경기록이란 점도 흠도 없는 은빛 거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약 1:21-25). 성경은 잘 닦여있어야 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말로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창6:5). 왜 KJB는 ‘know’ 대신에 ‘wist’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you’ 대신에 ‘ye’ 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구식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하게 되고 죄의 올라가미가 점점 우리를 얽매어 가면서 마지막으로 날카롭게 다듬어진 검이 주어졌는데 그 검은 양 날 달린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나누기까지 하는 킹제임스 성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로부터 사람들의 말을 분리해 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심리 언어학 데이터베이스와 프린스턴 대학의 인지과학 데이터베이스와 에딘버그 대학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KJB의 말씀만이 “온전한 말씀”입니다(딤후2:3).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의 마음이 그 단어들을 정의하는 대로 그것들을 정의합니다. 현대성서들의 타락한 단어들은 죄인들로부터 전혀 분리되지 않고 거룩함이 없이 유해하고 더럽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에딘버그 대학에서 사용하는 색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See *In Awe of Thy Word* for

documentation). 영국의회의 의원인 이안 페이즈리(Ian Paisley)는 KJB는 더럽혀지지 않는 영어라고 진술합니다(Ian Paisley, *My Plea for the Old Sword*, Belfast, Ambassador, 1997, p. 61). KJB는 “최후의 영어 성경은 더 적절한 영어를 어떤 곳에서도 찾아내야 한다.”는 틴데일의 소망을 모두 이루어 준 성경입니다(Dore, 2nd ed, pp. 23-24). 틴데일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대니얼은 KJB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일상생활로부터 안전하게 옮겨 놓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Daniell, p. xiii).

새 성경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에 신문을 읽는 것처럼 읽기를 원하신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KJB에 앞서서 읽기 쉬운 성경으로 비숍 성경(그리고 틴데일, 커버데일 그리고 그레이트 바이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식이고 단순하기만 한 비숍 성경 대신에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암송이 가능하고 운율이 살아있고 선교사들이 언어의 차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들이 사람의 목소리로부터 명확히 구별되는 성경으로 영구적으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전적으로 성경에만 사용되는 단어들도 보입니다. “fornication/간음” 그리고 “propitiation/화해”와 같은 단어들은 입을 꼭 채우는 단어들이나 이러한 단어는 머리로 꼭 채울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어들은 자체의 속도가 있습니다. 즉 말할 때 각각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긴 단어들은 속도 방지턱과 같습니다. 그들은 독자들이 천천히 읽게 하면서 잠시 멈추어서 도로에 있는 속도 방지턱에서 멈추어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긴 단어들은 KJB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순한 한 음절 또는 두 음절의 단어와 큰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내 말에 두려워하라”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사66:2). 그분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은 독특해야 합니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이닥칠 때 어떤 성경은 “curtain ... was torn in two/커튼이 두 개로 찢어졌더라” (TNIV, NIV and ESV)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의 하나님 되시는 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때 KJB는 “the veil...was rent in twain/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KJB 막15:38)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KJB는 비숍 성경의 단순히 더 길고 복잡하게 “두 조각으로” 또는 “두 부분으로” 된 단어를 ‘twain’ 이라는 시적인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twain’ 이라는 단어에서 긴 모음 ‘a’ 는 ‘veil’ 에서 ‘a’ 음의 긴 모음과 조화를 이룹니다. KJB의 단어는 강력하고 그 어떤 양날 달린 검보다 날카로운 ‘성경’의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열쇠를 잃어버렸고 꽃병이 산산 조각이 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어떤 자극이나 긴박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는(those who do not believe in Jesus Christ will “perish,”) 말에서 영원한 결정이라는 특별한 단어 ‘perish’ 를 사용합니다. 불신자들은 심령이 둘로 갈라지는 찢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들은 혼과 영을 갈라 쪼개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단어들입니다.

KJB 번역자들은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성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날 새 역본에서 보이는 단순한 단어들을 거부하고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주석 달린 비숍 성경(1603-1611)은 KJB 번역자들이 NKJV에서처럼 “meete for (마 3:8)” 대신에 “worthy”를 사용하는 것과 “Wherewithall shall we be clothed/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마6:31)” 대신에 “what shall we put on?”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4:2절에서 새 역본에서처럼 “doctrine”대신에 “teaching”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USA TODA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언어 전문가들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언어의 구조들과 그것들이 여러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자녀들에게 항상 암묵적으로 가르쳐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배를 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언어 구조와 야구를 관전하면서 사용하는 언어구조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그 차이를 이해할 겁니다”(April, 1, 2003, p. 8D). 스탠포드 대학의 레러(Lerer)교수는 킹제임스 성경 속에는 수준 높은 단어 뿐 아니라 단순한 단어들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서 어려운 단어의 정의가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쉬운 단어는 앵글로 색슨 어원에서 나옵니다. 더 어려운 어휘는 라틴어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KJB는 국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줍니다.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나 프랑스어나 루마니아어 또는 이탈리아어를 읽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나 네덜란드어와 노르웨이어와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읽는 사람들은 앵글로 색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 7장 2-6절에서 KJB 번역자들은 십일조(tithe)라는 수준 높은 특별한 단어의 정의를 “tenth part”라는 단어로 보여줍니다. 비숍 성경은 “Abraham gave tithe of all ... received tyth.”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KJB는 이 문장을 “Abraham gave a tenth part of all received tithe.”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된 책입니다. 오늘날 환상이나 광기를 주며 잠시 지나가는 책이 아닙니다. 독자들에게 아주 오래된 그리고 수명이 긴 것들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 성경 속에서 잘 다듬어진 문장들은 독자들에게 이 책은 오랜 시간을 잘 견뎌내고 여전히 인쇄되는 책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특별한 단어들은 독자들에게 이 책은 오랫동안 존경 받는 사상과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것들은 독자들에게 다른 책을 대했던 것처럼 이 책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1611년 당시 KJB는 영어를 사용하는 500만명의 사람만이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은 20억 명이 넘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얻도록 사용될 수 있는데 이들의 49%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 51%는 영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20억명은 전 세계 인구의 33% 가까이 되고 이제껏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의 16%가 됩니다. 이것이 마귀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항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필수가 되어 있습니다. 레러(Lerer)라는 영어 교수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20세기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영어가 국제적인 언어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See David Crystal's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the English Language* and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H.L. Mencken, *The American Language*, NYC: Alfred Knopf, 1937, pp. 590-615; The Teaching Company newsletter re: *The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n.d.).

지금 21세기에서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크게 쓰임 받는 이유는 사람의 수 때문이 아니라 H. L. 멘켄이 지적했듯 “영어의 탁월하게 짧은 단어 즉 어린 아기가 말하는 것 같이 간결하고 직선적이고 단순한 언어”라는 영어의 본래적인 특징 때문입니다(Mencken, pp. 600, 602). KJB는 2차적인 저작권(역지로 상당부분을 바꿔서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는)을 위하여 아주 어색한 라틴어로 기록된 새 역본과는 달리 KJB는 대부분 짧은 앵글로 색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사야 49:2절에 인용된 것처럼 KJB 번역자들은 말씀들을 “날카로운 검처럼 결국 빛나는 화살처럼”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KJB도 크고 특별한 어휘들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휘와 번역들은 새 역본의 단어들보다 더 짧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작은 책”입니다. 번역자들은 가장 짧고 생명력 있게 그리고 인간의 혼을 가장 예리하게 꿰뚫고 들어가는 길을 쇠를 다듬듯이 만들었습니다. 새 역본들은 ‘속죄(atonement)’와 ‘죄의 사함(remission)’과 같은 단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라틴어 화하고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계속 고쳐 나가면서 읽는 것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빌보드 차트에 있는 단어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사람들은 달려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전9:24).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달음질치게 하라”(합2:2). 예를 들면 KJB는 비숍 성경의 “followed”를 “was”로(마8:26), “howbeit”는 “but”로(마15:8) “fulfilled”를 “done”으로(마26:42)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연마석(研磨石)은 성령의 칼을 빛나게 잘 갈아서 결국 그것을 “정결하고” “날카롭게” 만드십니다. 번역자들의 날카로운 펜으로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을 깨끗하게 잘 다듬어서 말씀이 정확하게 핵심을 잡고 의미를 꿰뚫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엡3:3,4).

KJB의 내장된 영어 교사는 열 한 개의 다르게 말씀하는 부분과 뜻이 서로 연결되도록 열 한 개의 다른 형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새 역본은 이 모든 열한 개를 다섯 개의 형태로 마구 뒤섞어 버려서 성경의 이해를 매

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KJB는 문법적 이해를 단순하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언어의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규정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thou(단수 주격), 2.) thee(단수 목적격), 3.) thine(단수 소유대명사), 4.) thy(단수 소유형용사), 5.) ye(복수 주격), 6.) you(복수 목적격), 7.) your(복수 소유형용사), 8.) yours(복수 소유대명사), 9.) write(일인칭: I), 10.) writeth(이인칭: thou), 그리고 11.) writeth(삼인칭: he, she, 또는 it) 단수인 단어들은 thou, thee, thine, 그리고 thy와 같이 한 개의 t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인 단어들은 ye, you, your, 그리고 yours와 같이 위 쪽이 둘로 갈라진 y 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언어 학자들이 종합적이라고 말합니다. love라는 하나의 단어는 그것이 동사인지를 주어인지를 알려주는 어미로 그 의미를 변화시켜 버립니다(어미변화 예: lovest). 1인칭은 *I love*이고 2인칭은 *thou lovest*(2인칭을 나타내는 's') 그리고 3인칭은 *he, she, 또는 it loveth*(3인칭을 나타내는 't')입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현대 영어와 새 영어 성경은 종합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어학자들이 분석적이라고 부르는 언어입니다. 독자들이 문장의 순서에 맞추어서 단어가 맞기를 희망하면서 문장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단어가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 스스로 분석해야 합니다(예: 1인칭인: *I love*; 2인칭: *you love*; 3인칭: *he loves*). 누가 사랑하는지 당신인지 나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적인 해석이 금지된 성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률 문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2:48). 현대 언어로 대체된 것들은 충분히 정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동사가 자신의 주어와 떨어질 경우가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어미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미는 중요한 신학적 차이를 가져옵니다.

KJB는 세상의 대부분의 언어와 비슷하게 말하고 쓰는 유일한 영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국제적이며 지금 극성스럽게 영어를 배우고 있는 세상과 연결하는 하나님의 교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많은 토속 성경들에서 명확히 볼 수 있듯이 어미에 ‘-est’와 ‘-eth’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법과 신학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교사들은 KJB의 동사 어미에 있는 ‘-est’와 ‘-eth’가 세상의 많은 언어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KJB를 좋아합니다. 또한 이들 언어들은 동사의 2인칭에서 ‘s’와 3인칭에서 ‘t’를 사용합니다. KJB의 “*becamest*”는 현대 독일어에서 “*wurdest*”입니다. 그리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이디쉬어 그리고 많은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미에 ‘s’는 2인칭 단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미에 ‘t’를 사용하는 것은 또한 3인칭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미 철자가 일치하는 것뿐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thou’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는 tu 또는 du와 같이 ‘t’와 ‘d’입니다. 이러한 것은 KJB의 ‘thou’에서 ‘t’로 알 수 있지만 현대 성경에서 ‘you’는 비영어권 사람들에게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KJB의 “thou givest”는 독일어 “du gibst”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새 역본의 “you give”는 알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와 같이 KJB의 “thou findest”는 독일어의 “du findest”와 일치합니다. KJB의 “thou

redeemedst”는 이탈리아어의 “tu amaste”와 일치하지만 새 역본의 “you loved”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검의 양날과 말쑤의 양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거짓과 진실을 가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심지어 그분의 말씀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끝마침이라. …주가 말하노라”(계1:8).

KJB는 17세기의 영어가 아니라 성경적 영어입니다. 같은 기간에 기록된 셰익스피어의 희극들은 어미에 ‘-eth’와 ‘-est’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번역자들에 의해 1611년 이전에 기록된 KJB의 서문도 킹제임스 성경과 문체가 같지 않습니다. 서문은 ‘thy very name’이라고 하지 않고 “your very name”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JB 번역자들은 중요한 문법적 그리고 신학적 구분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많은 토속어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어미에 ‘thee,’ ‘ye,’ ‘thy,’ ‘thine,’ ‘eth,’ 그리고 ‘es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공작이 백조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작은 자신이 가진 아름다움의 일부분을 단지 확대합니다. 확대경 아래 놓인 아름다움은 확대된 아름다움입니다. 초기 영어성경이 등장했을 때 그 단순한 선들은 백조와 같았습니다. 지금 그것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확대된 세부사항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이전의 비숍 성경(c. 1568-1611)은 킹제임스 성경에 못지 않게 완벽하고 순수하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의 아름다움은 순금에 광을 내듯이 단지 광을 낸 것입니다. 그와 같이 킹제임스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우리의 보배로우신 구원자이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더 세밀하게 확대시키고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언약의 궤는 순금으로 장식된 나무 구조물입니다. 그 금이 그 구조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증거물인 그 내용물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을까요(출25:10-16)? 진정하고 거룩한 성경기록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대상16:29, 대하20:21, 시29:2, 시96:9, 출28:2,40).

성경은 일관되게 “네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사33:17)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슥9:17)라고 합니다. KJB에 적용된 몇 가지 변화는 최근의 영어로 개선하거나 당시의 언어를 반영하기 위해서 실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KJB의 번역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섬세한 조정은 다음의 질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 운율 강화 2.) 두운 적용 3.) 간결성 보장 4.) 지속성 확보 5.) 죄인들의 언

어로부터 분리 6.)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의 투명한 관점 제공 7.) 글자 소리의 동시성과 음절 수와 구문 구조를 다듬음 8.) 암송이 잘 되게 하고 이해와 교감의 리듬을 강화함. KJB 번역자들은 이들 요소들을 심사 숙고해서 초기 영어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이 모든 수준의 품질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했습니다.

어번 대학교 교수인 워드 알렌(Ward Allen)은 “기적과 같이 완벽한 권위역 성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Translating for King James*, p. ix). “기적”과 같은 현상은 KJB의 모든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얽힌 구조로 “거룩한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작가들도 “그분의 말씀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시56:4, 10). 알렌 교수는 킹제임스 성경을 평생 연구하면서 기적의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반드빌트 대학 출판사는 “킹제임스 성경”이 “모든 시대에 걸쳐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영어 언어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문서”라고 말합니다(*Translating For King James*, ix, back cover, et al.). 영국 교수인 데이비스 다니엘은 “권위역 성경이 인간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문학적으로 완벽함의 최고”가 된 것에 주목하면서 KJB의 “기적” 같은 감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Daniell, pp. vii, ix, x et al.).

미국의 H. L. 멘켄이라는 유명한 언어학자는 불신자 이긴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 번역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경이고 아마도 이 세상 모든 문학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다. 많은 배운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일상의 평범한 언어로 된

더 나은 번역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역 성경은 이것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KJB가 그리스어 신약이나 별게이트나 칠십인역보다 뛰어난 것처럼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분명하게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KJB의 영어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고 웅장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성경은 아주 장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시가 들어있는 광산과 같고 이제껏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영어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은 킹제임스 성경의 아름다움을 옹호하고 현 세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빈약한 성경들을 비판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오디오로 보존되어있는 1977년 9월 6일 그의 방송연설에서 그는 “영국의 제임스 왕이 번역자들과 학자들을 모아서 태어나게 했던 바로 그 권위역본”을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그 당시는 영어 언어가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시대였습니다.” 레이건은 “자신의 성경이 일간신문을 읽는 것처럼 좋아졌다.”고 하는 새 역본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일간 신문을 읽는 독자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처럼 감동으로 놀라워한 적이 있나요?” 그는 “성경을 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본문 말씀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있고” “종교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 새 역본을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람들을 참된 종교로 데려가는 것이며 그 일들은 수세기를 거쳐왔던 성경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KJB는 늘 올바른 언어였습니다.”

옥스포드의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입을 빌어 보스턴 그로브도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킹제임스 성경에 의해서 풍요로워졌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그와 같이 영향력 있는 작품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 (*In the Beginning Details Bible's Imprint on English*, by Diego Ribadeneira, July 9, 2001, p. BII)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을 느끼고 킹제임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렵듯이나마 볼 수 있을 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진실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분에 관한 책이고 오직 그분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눅24:32)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교만함 가운데 완악하게 되어 있다면 그들의 머리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 습니다.(잠8:5, 28:5, 단5:20, 10: 12, 막8: 17, 마13:15, 사6:10, 행 28:27).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

KJB 본문을 이해하기 쉽고 “가슴” 속에 “간직”하기 쉽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1.) 간결성 2.) 철자 소리의 일치 사용 3.) 리듬과 박자입니다. 유사한 것들에 유사한 소리들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의 기본 원칙입니다. God is good; the devil is evil and vile/하나님은 선하시고 마귀는 악하고 더럽습니다. KJB는 독자들에게 생각해야 할 절반을 대신 해줍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3:17에서 “Whose fan [is] in his hand, and he will thoroughly purge his floor, and will gather the wheat into his garner/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숍 성경은 더 시적인 ‘garner/곳간’ 대신에 단순한 단어인 ‘barn’을 사용했습니다. KJB는 더 지혜롭게 독자들에게 barn이 무엇인지 ‘garner’를 ‘gather’로 정의하면서 철자의 일치를 통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상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단어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을 소통하기 위해서 소리가 담긴 철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틴데일, 커버데일 그리고 위클리프와 같은 오래된 성경에서 진정효과가 있는 두운을 혀 끝에 나타나도록 어휘들을 꼬집어 내고 “적절한 소리의 배치”를 통해 좋은 효과를 나타내도록 합니다(*Translating for King James*, p. 26). 하버드대학에서 발행한 성경을 읽는 입문서를 보면 “현대 역본”들은 “고의적으로 어휘들을 바꿔서 효과를 희석”시켰고 “반복의 기법을 덮어 버렸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억눌러서 없애려는 실질적 욕망”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 Alter and F. Kermod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p. 656, 654, 655).

킹제임스 성경에 가까이 가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댔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감추어진 심장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벧전1:23). 오직 기적과 같은 KJB에서만 강세를 둔 음절과 거기에 일치하는 소리의 철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뛰는 맥박과 일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살아 숨쉬며 말씀하시듯이 살아서 생명을 주는 숨결의 리듬이 울리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육체적 부교감 신경의 리듬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흔들의자의 리듬처럼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에 어린아이가 편안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터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사66:13)

KJB의 큰소리로 강하게 읽는 음절은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KJB는 음절 숫자를 일치시킴으로써 단어의 정의를 비교하도록 주의를 일깨워 줍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에서 출간한 성경을 읽는 입문서에도 “강세가 주어진 음절들을 비교” 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이러한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p. 613). KJB는 그 운율을 변화시켜서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법은 세상의 영화 산업에서도 악당이 들어올 때 음악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워드 앨런 교수는 “번역자들이 일상에 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그 흔적을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The Coming of the King James Gospels, p. 48). KJB의 음절 배치는 의미를 소통하게 합니다. KJB의 리듬은 성경을 좀 더 쉽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The Story of English/영어 이

야기”라는 방송에서 작가는 “KJB는 문장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Robert McCrum, NY: Penguin Books, 1987, p. 113). 어린아이들은 그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KJB를 노래로 만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KJB의 수학적 질서는 창조자께서 정확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시인 T.S. 엘리엇트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고상한 문체는 “음절과 리듬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나 느낌의 의식적 경계 밑으로 파고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단어 하나 하나를 생명력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Adam Nicolson, *God’s Secretaries*, NYC: HarperCollins, 2003, p. 223).

17세기 이래로 우리의 왕이신 킹제임스 성경의 리듬의 흐름과 계산된 후렴구들은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은 단어들은 시적인 효과를 끌어 내주는 깊은 샘물을 제공해 줍니다. 시간이 흘러도 남아 있는 어휘들의 물줄기는 중요한 어휘들, 작은 어휘들, 쉬운 어휘들 그리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어휘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흘러온 KJB에서 우리는 똑같은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동의어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동의어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 단어 중에 특정한 문맥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단어만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철자와 강세 음절 또는 음절 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어들은 또한 성경의 내장된 사전입니다.) 마태복음 16:8, 9을 보면 “[Which] when Jesus perceived, he said unto them, O ye of little faith, why reason ye among yourselves, because ye have brought no bread? Do ye not yet understand,

neither remember the five loaves of the five thousand, and how many baskets ye took up?/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끼리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다섯 개로 오천 명이 먹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ceive’와 ‘understand’는 동의어입니다. 그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KJB 번역자들은 9절에서 비숍 성경의 ‘perceive’를 ‘understand’로 바꾸었습니다(‘thousand’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로 그들은 8절에서 ‘understood’를 ‘perceived’로 (그리고 ‘you’를 ‘ye’로) 바꾸었습니다(강한 ‘e’소리와 맞추기 위해서). 누가복음 12:33에서 비숍 성경의 “Sell that ye have ... and prepare you bagges”를 “Sell that ye have ... provide your selves bagges.”로 바꾸었습니다. 반복울림 소리가 지금 ‘sel’은 (Sell + selves), ‘v’는 (have, provide + selves)로, ‘y’는 (ye + your)로, ‘a’소리는 (have + bagges)로, 그리고 부드럽게 닫히는 ‘s’는 (yourselves + bagges)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반사되는 소리는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銀)” 같습니다(시12:6). 누가복음 19:21에서 KJB는 비숍 성경의 “because thou art a strait man”을 “because thou art an austere man./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로 바꾸었습니다. 은으로 된 검은 ‘because’와 ‘austere’가 눈에 띄는 리듬인 ‘aus’를 공유하면서 이제 빛이 납니다. 감각적인 리듬은 ‘art’와 ‘austere’에서 ‘a’와 ‘r’과 ‘t’소리가 상호 교환되면서 울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6에서 KJB는 비숍 성경의 “them which seemed to be”를 “these who seemed to be.”로 바꾸었습니다. 비숍 성경은 단지 두 곳에서만 리듬이 맞습니다. KJB에서는 두 개의 단어를 바꾸어서

다섯 개 단어 모두가 리듬이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these’와 ‘seemed’ 그리고 ‘be’가 긴 ‘e’ 소리를 가지고 있고, ‘who’와 ‘to’가 같은 ‘o’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16에서 KJB는 “I desire you, be ye followers of me”를 “I beseech you, be ye followers of me/너희에게 간청하 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로 바꾸었습니다. 이 성경은 “desire” to “beseech”로 바꾸면서 ‘e’ 소리가 반복되도록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단단한 진짜 은으로 된 겁인가요 아니면 모조품 인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니면 그분을 흉내 내는 사람인가요? 이 구절에서 새 역본들은 “I urge you to imitate me./나는 네가 나를 흉내 내기를 강권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흉내만 내는 새 역본들의 장점은 그 엉터리 이단 본문이 운율이 안 맞고 암기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KJB의 물결치는 소리의 효과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 같고 많은 물들에서 나는 소리”와 같습니다(계14:2). 마태복음 24:51에서 KJB는 비습 성경의 “hew him in pieces, and give him his portion with the hypocrites”를 “cut him asunder, and appoint him his portion with the hypocrites./그를 잘라 내고 위선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로 바꾸었습니다. 반복 울림이 있는 ‘asunder’와 ‘appoint’를 ‘pieces’와 ‘give’대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appoint’라는 단어가 asunder의 처음소리 ‘a’를 포함하고 있고 portion의 ‘po-’도 포함하고 있고 cut의 끝소리 ‘t’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ppoint’라는 단어가 ‘give’보다 더 쉽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세 단어 모두 두 번째 음절이 ‘n’소리로 마칩니다(a-sun-der, ap-point, 그리고 por-tion). 더 쉬운 단어인 ‘cut’를 ‘hew’대신에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u’는 ‘asunder’의 ‘u’와 운율이 맞습니다. ‘t’는 소리와 위치에 있어서 ‘appoint’의 ‘t’

와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3:7에서 KJB는 “hath warned you to flee from the anger”를 “hath warned you to flee from the wrath./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hath’가 ‘wrath,’와 운율이 맞고 ‘wrath’의 ‘r’ 소리는 ‘warned’의 ‘w’와 시각적 운율이 맞고 ‘a’는 ‘warned’와 일치합니다.

KJB에서는 아름다움이란 그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21에서 KJB는 비숍 성경의 “Give therefore un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를 “Render therefore unto Caesar the things which are Caesar’s./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로 바꾸었습니다. KJB는 비숍 성경의 더 쉬운 단어인 ‘Give’라는 단어 대신에 어려운 ‘Render’를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본인 NIV, TNIV 그리고 HCSB도 또한 ‘G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음절 단어인 ‘give’는 문장의 나머지에서 들리는 두 음절 형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Render’ 단어는 또한 문장에서 반복되는 끝 음인 ‘r’소리와 일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Give’라는 단어는 surrender(항복하다)라는 단어의 일부분인 ‘Render’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숨은 뜻이 없습니다. Render라는 단어는 쫓갠다는 의미와 가져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ender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그것을 먼저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Render는 선물이 아닙니다. ‘give’를 사용하면 선물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Render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KJB에서 ‘render’가 첫 번째 사용된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민수기 18:9). 하나님께서 민수기 18:6-26에서 열 번이나 내가 준다고 하시면서 ‘give’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단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에게 바쳐

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render’ 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분께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See also OED s.v. rend, render.).

KJB에서 보여지는 수 천 수 만개가 되는 두운법칙, 운율, 모음일치 그리고 자음일치를 예를 통해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숍 성경에서 KJB로 바뀌면서 다듬어진 어휘들입니다. KJB가 택한 어휘들의 원천들은 더 앞선 영어 버전에서 취해진 것이었습니다.

KJB는 마태복음 21:14에서 “halt came”을 “lame came”으로 바꾸었고, 로마서 1:21에서는 “heart was blinded”를 “heart was darkened”로, 로마서 4:15에서 “causeth wrath”를 “worketh wrath”로, 고린도전서 7:9에서는 “cannot abstaine”을 “cannot contain”으로, 에베소서 3:12에서 “boldness and entrance”를 “boldness and access”로, 에베소서 4:13에서 “measure of the age”를 “measure of the stature”로, 골로새서 4:6에서 “powdered with salt”를 “seasoned with salt”로, 데살로니가후서 2:2에서 “suddenly moved”를 “soon shaken”으로, 디모데전서 4:1에서 “spirites of errour”를 “seducing spirits”로, 디모데전서 5:22에서 “partaker... chaste”를 “partaker... pure”로, 디모데전서 6:5에서 “lucre is godliness”를 “gain is godliness”로, 히브리서 4:3에서 “made perfect from the foundation”을 “finished from the foundation”으로, 히브리서 9:13에서 “blood of oxen”을 “blood of bulls”로, 야고보서 4:13에서 “win gain”을 “get gain”으로 바꾸었습니다. 마가복음 9:3에서 KJB는 비숍 성경을 머릿속에 암송하기 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숍 성경에 “did shine, and become very white”를 “became

shining exceeding white./빛나며 매우 희게 되었더라.”로 개선시켰습니다.
‘exceeding’에 있는 장음 ‘e’를 ‘became’에 있는 장음 ‘e’와 일치시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shining’과 ‘exceeding’에 있는 ‘-ing’소리를 짝을 이루게 했습니다.

본문의 편안함

KJB 번역자들은 성령의 감을 빛나게 닦을 때 양날 모두를 닦았습니다. 그들은 영어 언어에서 복잡할 수 있는 문학적 기법들을 문맥상 명확한 의미로 조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성경 비평가들과 번역자들은 영어의 심미적 잠재력에서 충분한 감각이 부족합니다. KJB 번역자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언어의 퍼즐 조각들을 부모의 도움으로 어린이가 퍼즐을 함께 맞추어서 퍼즐을 맞추고 나면 한 폭의 완성된 그림이 되는 것처럼 정확한 장소에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낸 건축 벽돌을 바벨에 준비해 두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KJB번역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단지 그 벽돌들을 성령님께서 보존한 올바른 위치에 올려 놓았습니다. KJB이 수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은 독자들에게 번역자 없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살전2:13).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언어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이까?”(창40:8). 바벨탑에서 새로운 어휘들과 언어들을 사람들에게 창조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수하고 완벽한 생각을 소통하는 일을 죄인들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숨이 담긴 영어성경을 소유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살아 있고 400년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랑 받고 있습니다. 수백 권의 다른 성경들은 저작권자가 죽으면 사라지고 광고를 쏟아 붓지 않는다면 생명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숨이 없는 성경들입니다. KJB 저자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과 그분의 세상과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입의 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그 말씀들은 리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듬은 KJB에서 몇 가지 방법으로 입증됩니다. 한가지 방법은 강세가 있는 음절들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큰 소리가 나는 강세 음절들이 동일하게 균일한 간격으로 놓여 있을 때 리듬감과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강세가 놓여진 음절과 강세가 없는 음절들이 균형 있게 배치되면서 숨을 호흡하는 것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리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강세가 있는 음절의 순서는 단지 리듬 그 이상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KJB에서 독자가 반영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시편 73:2에서 약강의 운율을 일치시키는 것이 독자가 병행시킨 단어의 정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my feet were almost gone/ my steps had well nigh slipped,” 라고 조화롭게 읽힙니다. 각 줄은 여섯 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두 음절 씩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들 짝으로 이루어진 것은 완벽하게 ‘feet’ 는 ‘step’ 으로 ‘were’ 는 ‘had’ 로 ‘almost’ 는 ‘well nigh’ 로 병행시키며 정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약강의 운율에서는 두 개의 음절들이 있고 첫 번째 음절은 강세가 없고 두 번째에 강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줄에 세 개의 음보(하나의 시행에서 강세를 받는 음절 하나와 강세를 받지 않는 음절 하나 이상으로 이뤄지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 3 음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문장은 그러한 리듬으로 맥이 뗍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요한복음 16:29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양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1) 시작하는 말씀인 “His di-sci-ples/ said un-to` him,/ Lo, now speak-est”를 똑같이 4개의 음절 묶음으로 일치시켜 나누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강세가 있는 음절들은 정확하게 매번 다섯 번째 음절에 나타납니다. 2.) 나머지 구절인 “thou plain` -ly/ and speak` -est/ no pro` -verb”는 세 음절의 묶음으로 일치하도록 나누어 놓았습니다.

강세가 있는 음절은 정확하게 매번 네 번째 음절에 발생합니다. 강세가 있는 음절이 반복되는 리듬은 ‘s’와 ‘p’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욱 확대됩니다. 3.) 큰소리로 강세가 있는 음절들은 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에 있습니다. 강세가 있는 음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단어들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단어들만으로도 구절의 핵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4.) 강세가 있는 음절들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큰 소리로 읽는 부분은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 단어들이 모두 연합해서 모이게 되면 완전한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him Lo now’ 또는 ‘ly and speak’와 같이 의미 없이 혼란스러운 음절들로 짝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만약 “speakest”를 ‘speak’로 바꾸고 “unto”를 ‘to’로 바꾸면 모든 리듬과 특별한 효과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 역본들은 얼핏 보면 작아 보이는 요소들을 삭제하고 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킵니다. 시(詩)는 아마도 한 음절씩 건너뛰면서 강세가 있는 강약의 운율과 네 번째 음절마다 강세가 오는 강약약 운율만을 보면서 앞에 언급한 현상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s’와 ‘p’ 리듬을 위해서 정확한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보십시오(이 주제에 관해서 더 많은 예제와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G.A. Riplinger의 *In Awe of Thy Word*, pp. 346-348를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음들을 세고” 계신다면 그분의 사상들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겠습니까(욥31:4, 6). 예를 들면 로마서 2:20에서 비숍 성경에서는 3/7 홀수 음절로 된 (“in-for-mer/of them which lacke dis-cre-tion”)을 KJB에서는 “An in-struc‘-tor/Of the fool’-ish.”로 동일 음절이 반복되는 4/4 음절이고 동일한 곳에 강세가 오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로마서 13:12에서는 비숍 성경에서는 4/5 음절인 “the night is passed/the day is come nigh”로 된 것을 동일음절이 반복되는 5/5 음절 형태인 “The night is far spent/the day is at hand.”로 만들었습니다. NIV와 TNIV는 일치되지 않는 7/6 음절로 된 “The night is nearly over:/the day is almost here.”로 앞선 음절형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맥이 뛰는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너와 말하고” 계십니다(고후3:3, 잠6:22).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지 비평가들이 의문을 제기할지 모릅니다. 영어는 선물로 주신 언어입니다. 여러 세기를 거쳐 영어를 말하는 국가를 오가던 선교사들은 많은 언어들로부터 유래한 단어들을 영어에 선물로 더해왔습니다.

영어가 작업하기에 좋은 가장 많은 어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아마도 영어를 세계에서 가장 시적인 언어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영어 단어는 많은 동의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를 말하는 우리는 같은 말을 3 음절의 라틴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1 음절의 독일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어와 KJB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날 국제 언어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막6:31)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출33:21).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박동 소리인 말씀이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있는 사도 요한에게 들립니다(요13:25). 우리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자신의 입의 영”이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분을 들을 수 있습니다(살후2:8).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속의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KJB에 청진기를 대면 그것이 아직 살아서 건재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4:10에서 KJB는 비숍 성경의 “beare about in the body”를 “bear-ing a-bout in the b-ody/몸에 짊어짐”으로 바꾸어서 ‘b’ 소리가 4번째 음절마다 균일하게 울리게 됩니다. KJB의 놀랍도록 질서 정연한 형태와 소리의 반복진행은 무질서와 혼돈이 존재하지 않는 하늘왕국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구름 한 점 없는 그 날의 땅으로 데려가서 구불구불한 언덕들이 있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바닷물이 밀려오고 나가는 높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바로 그 평온한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요14:27). 모세가 출애굽기 33:21-22에서 말씀하셨던 “틈”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KJB에서 한 줄 한 줄에서 메아리 치는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번역자들은, 성경기록이 우선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만들어 주고(딤후3:15), 그리고 나서 “길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실 것이고 질서에서 벗어나면 우리를 바로잡아 줄 것이고 마음이 무거울 때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느슨해지면 우리를 깨워줄 것이고 우리가 냉랭해지면 우리를 뜨겁

게 해줄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폭풍이 혼에 불어오고 바다가 진노하고 강풍으로 비집고 들어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의 선율을 통해 나오는 하늘의 하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책은 “In Awe of Thy Word: Understanding the King James Bible, Its History and Mystery”라는 1184쪽의 양장제본에서 역사관련 부분 662쪽 분량을 요약했습니다.

원본은 거룩한 성경 말씀에 관한 최초이자 유일한 역사적 입증 자료입니다.

이 책은 고대의 비밀장소에서 나온 희귀하고 가치 있는 성경들을 단어 하나 하나 문자 하나 하나씩을 분석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수만 시간을 대조하여 자료들 안에, 시간 속에 녹아 있는 메아리들이 울려 나오게 하였습니다.

1세기에서부터 오늘날 사랑 받는 킹제임스 성경에 이르기까지의 그 순수하고 거룩한 성경 보존물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이 직접 보십시오. 사용된 영어를 주의 깊게 보면 그 거룩한 성경이 여러분의 눈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 『In Awe of Thy Word』에는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이 성경의 각 단어에 내재한 의미를 발견한 방법에 관하여 522쪽의 분량이 실려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나 커버데일 같은 번역자들이 토착어 성경의 성스러운 문자나 음절을 말했을 때에 그 의미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알파벳구조물들이 어떻게 그 뜻을 세우고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을 중심으로 믿는 독자들에게 자동적으로 그 단어의 뜻이 정의되고 이러한 말씀의 뜻을 만년필로 쓴 글자가 스스로 보여준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손꼽는 대학들이 컴퓨터분석 언어학적 방법으로 발견하였습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75	로마서 강해	김 영 균	368	13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6년 11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지은이 Gail Riplinger

저서

The Language of the King James Bible

Which Bible is God's Word

In Awe of Thy Word: Understanding the King James Bible

Its Mystery and History Letter by Letter

